

2024 튀르키예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新정부의 분야별 주요 공약 및 정책 추진 전망	6
나.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도모	7
다. 지진 지역 재건 및 향후 지진에 대한 대비 강화	8
라.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8
마. 튀르키예 전기차 기술 로드맵 수립	9
바. 에너지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한 대외의존도 하락 도모	10
사. 디지털 전환 및 그린 뉴딜 노력 확대	11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3
2. 시장 분석	28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8
나. 교역	29
다. 투자 진출	34
라. 에너지 개발	37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8
가. 교역	38
나. 투자	41
다. 협력 유망 분야	43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46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7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8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58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60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61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2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상승) '24년 GDP 성장률은 4.3%로 '23년에 비해 소폭 상승 예상(출처 : OECD)

- 유럽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이 예상되나, 지진 재건 프로젝트 추진, 가계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24년 GDP도 성장이 예상됨
 - 높은 물가 상승률 지속 및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23년 상반기까지 개선세를 보이던 제조업이 하반기들어 다시 둔화되는 모습
 - * 제조업 PMI : ('21.12)52.0 → ('22.12)48.1 → ('23.1)50.1 → ('23.6)51.5 → ('23.8)49.0 → ('23.10)48.4
- 정부는 안정적인 국내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자국 화폐 가치 하락, 높은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고 부족,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집중 관리 중
 - '23.5월 대선 이후 매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전통적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며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
 - * 기준금리(%) : ('23.5)8.5 → ('23.6)15.0 → ('23.7)17.5 → ('23.8)25.0 → ('23.9)30.0 → ('23.10)35.0
 - 그러나, 부족한 정부 자금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2%p ↑) 및 유류세(200%p ↑) 인상 정책 등도 펼치고 있어, 물가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높음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추정	2024년전망
인구	백만 명	82.1	82.8	83.5	84.1	84.8	85.3	85.8	86.3
명목GDP	십억 달러	855.9	776.2	759.1	715.7	813.4	897.6	956.8	1,052.6
1인당 명목GDP*	달러	10,696	9,793	9,195	8,600	9,592	10,655	n/a	n/a
실질성장률	%	7.4	3.2	0.7	1.6	11.1	3.3	3.3	3.1
실업률	%	10.9	10.9	13.8	13.2	12.0	11.3	10.6	10.8
소비자물가상승률	%	11.7	20.2	11.5	14.3	35.7	64.8	41.1	23.7
재정수지(GDP대비)	%	-1.5	-1.9	-2.9	-3.5	-2.7	-3.8	-4.8	-3.9
총수출(FOB)	백만 달러	156,993	167,921	171,465	160,657	213,598	235,248	244,418	260,251
(對韓 수출) *	"	621	982	943	1,103	996	n/a	n/a	n/a
총수입(FOB)*	"	233,800	223,047	202,704	209,534	260,682	342,210	351,564	358,943
(對韓 수입)*	"	6,822	6,638	5,777	5,734	4,882	n/a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76,807	-55,126	-31,239	-48,877	-47,084	-106,962	-107,146	-98,692
경상수지	"	-39,955	-20,151	10,796	-31,888	-7,232	-48,751	-51,546	-40,658
환율(연평균)	현지국/US\$	3.77	5.26	5.95	7.35	12.99	16.55	23.97	29.0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1	39	34	31	46	48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74	67	58	57	70	67	n/a	n/a

자료: EIU(22.9월) / * 튀르키예 통계청 / ** 튀르키예 중앙은행

- ※· 중간재 현지화 정책 강화 및 실리외교 추진
- ※· 전통적 경제정책으로 화귀,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도모
- ※· 지진 지역 재건 및 지진 대비 인프라 강화
- ※·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 ※·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디지털 전환, 그린 뉴딜 적극 추진

가. 新정부의 분야별 주요 공약 및 정책 추진 전망

▣ (정치) 대통령이 부통령·법관·공무원 선임 및 해임 등의 임명권, 의회 해산권, 국가 비상사태 선포권 등을 가지는 대통령 중심 체제 유지 전망

-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의개발당(AKP)과 강력 보수 성향의 민족주의행동당(MHP)의 연정으로 현재의 대통령 중심 정치체제 지속 가능
 - 정의개발당(AKP)이 247석, 민족주의행동당(HMP)이 50석을 차지하여 보수 연합은 총 317석(총의석수 600석)으로 의석수 과반 확보

▣ (경제) 중간재 현지화 정책 강화 및 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 에너지 생산 역량 확대, 교통 인프라 확충 추진

- 중간재의 현지화 정책을 더욱 강화, 특히 방위산업의 경우 100% 자국 내 생산 도모 (現 방위산업 대외의존도 약 80%)
- 병원 건설*(약 62억 달러 규모), 흑해 천연가스 생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신규 고속 열차 및 해저터널 건설 등의 프로젝트 추진
 - * 지역별 병원 건설 프로젝트 : 빌켄트 13억, 가지안텡 9억, 이즈미르 6억, 에틀릭 1억 달러 등

▣ (외교) 러시아·중동·서방 간 실리외교 추진

- NATO 내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미국과의 이견을 지속하여왔으나, 대선 이후 친서방 외교 정책 추진

-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을 지지하고, 미국과의 전투기 교역을 추진
-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세력에 대해 강력히 비판
- 그러면서도 러-우 사태 이후에도 서방의 친러시아 제재에 불참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및 원전 분야 협력 지속 확대 중
 - * 총 사업비 200억 달러로 러시아 국영원전회사 로사툼이 건설한 튀르키예 원전 1호기(Akkuyu) 가동 시작, '28년까지 총 4기 건설 예정

나.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도모

▣ 전통적 경제정책으로 회귀 통한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도모

- '23.6월 신내각 구성 시 시장친화적 인물인 메흐메트 심셰크와 하피제 가예 에르칸을 각각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하며 변화 도모
 - * △ 메흐메트 심셰크 : 글로벌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와 UBS에서 근무
 - △ 하피제 가예 에르칸 : 골드만삭스에서 약 10년 근무
- 2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8.5%에서 25.0%로 인상하고, 개인·기업 리라화 의무 보유 비율 제한을 65%에서 57%로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 '22.10월 8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23.8월 58.94% 기록
 - 단, 25%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튀르키예 화폐 가치가 소폭 상승했으나, 곧 다시 평가 절하된바, 금융시장의 지속 모니터링 필요
 - * 환율(USD/TRY) : '23.3.3)18.89 → ('23.6.25)25.3 → ('23.7.25)26.9 → ('23.8.24)25.9 → ('23.9.20)27.0 → ('23.10.27)28.2
- '02년 이후 처음으로 '23.5월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순 외환보유고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으며 21년 만에 최저치인 △ 603억 달러를 기록
 - 신내각 구성 후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에 힘입어 외국 자본 유입 확대, '23.10월 순외환보유고가 826억 달러로 증가
 - * 외환보유고 : ('23.5)985억 → ('23.10)1,261억 달러 / 실질 외환보유고 : ('23.5) △ 603억 → ('23.10)207억 달러

다. 지진 지역 재건 및 향후 지진에 대한 대비 강화

▣ 환경도시부-TOKI(튀르키예 주택개발청) 주도 지진 피해 지역 재건 사업 추진

* '23.2월 동남부 10개 주에 규모 7.8의 강진 발생, 4.6만 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120만 명 거주 주택 붕괴

- 지진 지역에 총 80만 가구의 주택 건설 추진, '23년 내 32만 가구 완공 예정
 - TOKI가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하며 6개의 튀르키예 국적 건설사 참가
 - * 재건사업 참여 건설사 : Kalyon, ANT Yapi, NKY, KUZU Grup, Ege Yapi, Dome
- 재난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상하수도 시설 및 공공시설, 에너지 인프라 등의 프로젝트 추진 예정
 - 월드뱅크로부터 14.5억 달러를 지원받아 재난지역 중소기업 자금 지원(4.5억 달러), 인프라 복구(4.2억 달러), 주택 재건(2.9억 달러), 의료 서비스(2.7억 달러) 등에 배정

▣ 튀르키예 전역에 걸친 지진 대비 프로젝트 추진

- 이번 지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로 건물의 부실한 시공·관리가 대두됨에 따라 주요 도시들은 노후 건물에 대한 내진 설비 점검 중
 - 이스탄불의 경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내진 설비를 점검하고 미비할 경우 수리 또는 재건축 중, 노후 주택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내진 설비 점검 지원

라.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 중간재 산업 육성 및 자국 내 가치사슬(Value Chain) 강화

- 중간재를 수입·가공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자 중간재 제조 외국기업의 생산시설 직접투자 유치 노력 강화
 - 특히 자동차, 가전, 방위산업 등 튀르키예 전략산업의 경우 자국 내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강화하고, 세금 감면과 장기 대출(최대 100억 리라) 지원 등을 통해 해외의 중간재 수출업체들의 생산공장 이전 유도
 - * △세금 감면 : 수입관세, 법인세(최대 20%) 등 △장기 대출 : 최대 100억 리라, 만기 120개월

- 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는 3대 완성차 메이커인 Mercedes-Benz, Audi, Suzuki를 중심으로 전후방 연계성이 높은 공급사 투자 유치 확대 중
 - * 주요 투자 규모 : BMW 10억 유로, Mercedes Benz 1억 유로 등
- 수입 규제 강화를 통한 자국 생산 중간재 사용 확대 유도
 - 화학, 철강, 섬유 등 핵심 중간재 위주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제도 활용하고 있으며, '23.10월 기준, 30개국 대상 200건 수입규제 조치 중
 - * △ 주요 대상국 : 중국(61건), 말레이시아(22건), 베트남(20건), 인도(18건) 등
 - △ 주요 품목 : 섬유(78건), 철강금속(57건), 플라스틱·고무(26건) 등
 - 한국 대상 수입 규제는 총 15건(반덤핑 9건, 세이프가드 6건)

▣ Industry 4.0 대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 자동화 추진

- 현지 글로벌 가전업체를 중심으로 공장 자동화가 적극 추진 중으로 '23년 상반기 기계·장비 수요가 전년 대비 35.9% 확대됨
 - 이즈미르에 생산 공장을 보유한 Hugo Boss社는 쏘 생산 공정의 실시간 추적·관리를 위해 버추얼 트윈(Virtual Twin) 기능을 도입한 생산라인 구축
 - * 버추얼 트윈 : 가상공간에 현실과 똑같은 제품이나 공간을 구현하고,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봄으로써 현실세계 문제를 가상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정부는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기계·장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 지원금 제공
 - 중소기업청(KOSGEB)은 기업별 최대 3,700만 달러까지 기계 설비 구매 비용 지원

마. 튀르키예 전기차 기술 로드맵 수립

▣ 자동차 생산국 및 유럽연합의 내연기관차 이산화탄소 배출 금지 추진에 대응

- 유럽연합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신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중
 - 이산화탄소 배출을 '30년까지 승용차는 55%, 소형 상용차는 50%, '35년에는 100% 감축하는 법안
- 튀르키예는 '22년 기준 13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97만 대를 수출 중이며 EU가 최대 수출시장이기때문에 EU의 해당 법안은 튀르키예의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침

▣ 전기차의 국산화율 제고, 기술 혁신, 인적자원 및 인프라 확충에 역량 집중

- '30년까지 튀르키예 시장 내 전기차 판매비율 35% 및 생산 전기차의 국산비율 75% 목표
- 각종 혜택과 정부기관의 전기차 사용 의무화를 통해 구매 장려
 - 자동차세 감면(내연차의 약 25% 수준) 및 차량가격의 45~220%에 달하는 특소세율을 최대 60%(160kw 이하)로 인하('22.7월부)
-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
 - 총 25만 대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35%는 DC형)를 목표로 현재 6,500대 설치 완료했고 '23년 말까지 10,000대 설치 예정
 - 전기차 배터리 모듈 및 패키지 개발을 위한 배터리 시험센터('25년 목표) 및 생산센터('30년 목표) 설립 추진 중

바. 에너지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한 대외의존도 하락 도모

▣ 에너지 자립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로드맵 수립

- 원자력 발전소 건설, 천연가스 채취,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35년 목표)
 - 튀르키예는 원유의 92%, 천연가스의 99%를 수입하는 등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30년까지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2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

▣ 에너지 생산량 대폭 확대를 위해 원자력 및 천연가스 개발

- 원자력으로 국내 전기 수요의 29%를 생산할 계획으로, '50년까지 2만M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목표
 - 현재 튀르키예는 총 3개의 원전 프로젝트(아크쿠유, 시놉, 트라키아)가 추진 중에 있으며 1호 원전 아크쿠유는 '26년 완공 예정
 - * 아크쿠유 발전소 : '10년 Rosatom(러시아) 수주, 총 4호기를 건설 중이며 1호기는 '23년 가동 예정
- 흑해 사카리아 천연가스전(매장량 : 7,100억m³)에서 '23.4월부터 연간 약 35억m³ 수준의 채취를 시작했으며 4년 안에 150억m³ 수준으로 늘릴 계획

▣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 2021~2030’ 수립

- 에너지 믹스, 효율 향상, 폐기물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20년 43,700MW에서 '30년 112,300MW 확대
- 태양광 20GW 및 풍력 16GW 생산, 송배전 전력 손실률 15%, 폐기물의 에너지화, 제로에너지 주택 보급 확대 등을 추진

사. 디지털 전환 및 그린 뉴딜 노력 확대

▣ 정부 주도 디지털 전환 정책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도모

- 대통령 직속 디지털 전환 사무소, ‘튀르키예 국가 AI전략 2021~2025(‘21.8)’ 추진을 통한 스마트 정부 시스템 및 빅데이터·AI 기술 활용 확대 노력
 - 공공기관과 조직, 관련 법령 등 행정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 공공 정보관리 시스템(KAYSIS), 온라인 민원 행정 서비스 시스템(e-Devlet) 개편 등을 통한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 추진 중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 관리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에 대한 수요 높음
 - 최근 진행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첨단 스마트 교통체계 기술을 적용하여 AI를 기반으로 한 사고 감지, 제어, 재난 관리 및 예측 시스템 등이 도입됨
 - * 차낙칼레 대교(한국 참여), 앙카라-니데 고속도로, 아이든-데니즐리 고속도로 등

▣ '21년 7월 ‘그린 뉴딜 행동전략’ 발표 및 추진

-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 강화,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 상승으로 9개 세부 실행계획으로 구성된 ‘그린 뉴딜 행동전략’ 추진
 - 탄소국경세 영향 최소화, 녹색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시사
 - 전기차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시스템 내 전기차 운영 확대 등 지능형 친환경 교통 시스템 관련 기회요인 상승
 - 튀르키예 무역부, 연내 탄소세 우선 적용 산업(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대상 ‘탄소 저감 생산 로드맵’ 발간 예정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레젵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의개발당(AKP)이 재집권에 성공
- ※ (경제) 전통적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금융·외환시장 안정 기대
- ※ (산업) 자동차, 가전, 플라스틱 가공 중심의 제조산업 및 건설업 발달
- ※ (정책) 무역 역조 개선, 스마트시티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 고도화 정책 확대

가. 정치 환경

▣ 정치체제 개관

- 대통령제 국가로 예산 통제 권한을 가지며 5년 중임 가능
 - '17년 헌법 개정 이후 '18년 6월부터 기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 국가로 정치 체제 개편
 - 의회는 5년 임기의 국회의원 600명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원 선거는 총투표 인원수 대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데 득표율이 10% 이상이어야 의석 배정
 - 정부 내각은 국무총리 및 21개 장관급 부처로 구성

▣ 정치 동향 및 주요 이슈

- '23.5월 진행된 대선 및 총선에서 레젵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의개발당(AKP)이 재집권에 성공
 - 다수의 언론이 경제상황 악화, 대지진 등으로 20년 만의 정권 교체를 예상했으나, 민족주의 및 이슬람주의 보수층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
 - 에르도안 대통령의 AKP가 제1당을 차지, 강력 보수 성향의 민족주의행동당(MHP)과의 연정으로 현재의 대통령 중심 정치체제 지속 가능
 - * 보수연합은 총 317석(AKP 267석, MHP 50석)으로 의석수 과반 확보

- '28년 조기 대선 실시 및 승리할 경우 '33년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
 - * 임기 중 조기 대선 실시 및 승리 시 추가 5년 임기가 보장되도록 헌법 개정('17년)
- 튀르키예는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동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국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
 - 이집트, 레바논, 사우디 등의 주변국과 가자지구 원조, 민간인 피해 최소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이 후, 이슬람협력기구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가자지구 내 민간인 대상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행위에 대해 이슬람협력기구 차원의 조치 논의 예정

나. 경제 환경

▣ (경제성장률) '24년 GDP 성장률은 2.8%로 '23년 수준 정도의 저성장 예상(IMF 기준)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22년 제조업 부진 흐름이 '23년 상반기에는 개선되는 듯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다시 둔화되는 모습
 - *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 ('23.1)50.0 → ('23.3)50.9 → ('23.5)51.5 → ('23.7)49.9 → ('23.8)49.0 → ('23.10)48.4
 - 지진 피해 지역에 본격적인 대규모 재건 작업이 시작될 경우, 튀르키예의 제조업 상황은 보다 개선될 전망

〈주요 기관별 2023~2024년 튀르키예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	IMF	OECD	World Bank
'23년	3.0	3.6	3.2
'24년	2.8	3.7	4.3

자료: 각 기관별 보고서 발췌

- '22년 하락 추세를 보이던 경제신뢰지수는 '23년 상반기에 다시 반등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에 의해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
 - * 경제신뢰지수 : 소비자 및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기대 종합지수 (('21.9)103.7 → ('22.2)99.0 → ('22.6)94.4 → ('23.3)98.8 → ('23.6)101.1 → ('23.10)96.5 (자료 : 튀르키예 통계청)

▣ (물가) '24년 물가상승률은 '23년 대비 다소 낮아질 전망

- * 물가상승률 : ('22.12) 64.27% → ('23 전망) 58% → ('24 예측) 33% (자료 : 튀르키예 중앙은행)
- 타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튀르키예는 기준금리를 인하, 통화량 증가 및 환율 상승을 유발하여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소비자 물가가 급등
- '23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대선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됐으나, '23.7월 부가세 및 유티세가 각각 2%p 및 200% 인상됨에 따라 큰 폭의 물가 상승 우려
 - * 대선 前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가스비 감면('23.5.31 종료) 등 시행
 - ** JP모건 : 세금 인상 조치로 '23년 말 물가상승률을 62%로 전망

▣ (금융·외환) 금융·외환시장 안정 기대

- '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튀르키예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에 통화량 증가로 현지화 가치 하락 및 소비자 물가 상승 유발
 - 예측 불가능한 금융환경으로 인해 외화 유출도 급속히 진행되어 '23.5월 외환보유액 대비 만기 도래 단기외채(1년) 비율이 179.9%로 매우 높았음
- '23.6월 新내각 구성 후, 전통적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려는 동향이 감지됨에 따라 환율 및 물가상승률 안정 기대
 - 외환보유고 또한 기준금리를 인상한 '23.6월에 115억 달러가 증가한 이래 지속 확대되고 있어 '24년에는 외환보유고 상황 개선이 기대됨

〈튀르키예 환율,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추이〉

구분	'21.3	'22.8	'22.11	'23.5	'23.6	'23.8	'23.9	'23.10
기준금리(%)	19.0	13.0	9.0	8.5	15.0	25.0	30.0	35.0
환율(TL/USD)	7.6	18.0	18.6	19.7	23.5	26.9	27.0	27.9
물가상승률(%)	16.19	80.21	84.39	39.59	38.21	58.94	61.53	N/A
외환보유고(억 USD)	906.3	1,116.5	1,226.0	984.5	1,085.9	1,173.0	1,222.0	1,261

자료: 튀르키예 중앙은행, 튀르키예 통계청('23.11.1 발표 자료 기준)

▣ (투자 환경) 중간재 및 고부가가치 산업 직접투자 유치 노력 강화

-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유럽 및 중동시장 진출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유럽 기업의 제조업 투자가 많음
 - 다만, 중간재를 수입·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구조가 많은 상황으로, 중간재를 튀르키예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강화
- 튀르키예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추진
 - 내·외국인 동등 대우, 세금 감면, 연구개발 인센티브, 대출 및 고용 지원을 비롯하여 프로젝트별 맞춤형 인센티브도 지원 중

▣ (주요 이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동사태 장기화시 금융시장 불안 가중

- 중동사태 조기 종료 시, 튀르키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두 국가와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지 않고 조기 종료시, 튀르키예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
 - * '22년 기준 총 수출 중 양국 비중(%) : 이스라엘 2.8%, 팔레스타인 0.05%
 - 현지 진출 기업 인터뷰 결과, 현지에 진출해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글로벌 기업들과의 네트워크에도 문제가 없으며 공급망, 물류 모두 이상없이 작동 중
- 단, 해당 사태가 중동 주변국까지 확대되거나 장기화될 시, 유가 급등 및 중동 전체 시장에 대한 불안으로 확대 우려
 - 이는, 튀르키예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인 국가재정 및 외환보유가 부족, 하이퍼 인플레이션, 자국 화폐 가치 하락 등에 추가적인 위협이 될 것
 - 튀르키예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으로, 유가 상승시 현재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과속화될 전망
 - 사태 장기화 시 중동 시장 불안 확대로 안정자산인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며, 외국인 투자 또한 감소할 것

다. 산업 환경

▣ 개요관광산업 및 완성품 중심의 제조업 발달

	배 경	현 황
서비스업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문화유산, 자연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산업 발전 외국인 관광객('22년, 5,139만 명) 관광 매출 수익('22년, 465억 달러)
제조업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장려 정책 및 외자 유치 내수(8,500만 명), EU 관세동맹 풍부한 노동력, 지리적 이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품 중심의 제조업 발달 중간재 수출입 비중 高(80%) 자동차, 가전, 섬유, 철강 발달
농림수산업 및 기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 면적의 50% 경지 면적 농업에 대한 장려정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류, 채소류의 생산 중심 총 수출액의 12% 규모 차지

▣ 자동차산업

- 튀르키예는 유럽의 자동차 공장으로서 '22년에는 연간 총 생산량(135.2만 대)의 71.7%에 해당하는 97.0만 대를 수출, 특히 對유럽 수출 비중(65%)이 높음
 - Renault, Ford, Fiat, 현대차 등 총 14개 완성차 업체 및 400여 개의 1차 자동차 부품 협력사가 제품 생산
- 유럽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전기차 브랜드 개발, 전기차 생산공장 설립, 전기차 충전소 확충 등을 추진
 - 자국 전기차 기업 TOGG* 설립 및 '23.4월 양산 시작
 - * TOGG : 5개 기업(Anadolu Group, BMC, Koç Group, Turkcell, Zorlu Holding)과 튀르키예 상공회의소 및 상품거래소 연합(TOBB)이 전기차 생산을 목적으로 만든 컨소시엄
 - 튀르키예 정부는 전기차 생산 증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자국 생산 계획 발표
 - * 현재 Koç Holding(튀르키예 최대 기업), Ford 튀르키예 법인, LG엔솔은 앙카라 인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추진 중
 - 전기차 인프라 강화를 위해 '23년 연말까지 1만 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

■ 화학산업

- 튀르키예는 정유산업 발달이 미흡, 합성수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정유생산기업으로 SOCAR사 및 TUPRAS사가 있으나 생산량은 튀르키예 전체 수요의 20% 미만
 - 정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사용하여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PEKIM사가 유일
- 석유화학 원부자재의 주요 수요처는 자동차, 기계류, 백색가전, 섬유 및 건설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회복되면서 화학산업도 정상화 추세
 - 국내에서 정유 및 기초유분 생산이 매우 부족하여 화학산업의 원부자재 중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동 수입액 중 60% 정도가 합성수지 제품군
 - '22년 기준 화학공업제품의 주요 수입 품목군은 플라스틱류(40.8%)와 유기화합물(23.9%)이며, 주요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한국, 중국 등
 - '22년 기준 화학공업제품의 對한국 수입 비중은 7.6%이며 이 중 플라스틱류와 유기화합물이 對한국 전체 수입액 중 42%를 차지
- 튀르키예 정부, 자국 내 화학공업의 원부자재 생산 역량 강화 도모
 - 튀르키예-알제리 합작 폴리프로필렌 생산공장 건설(24년 완공 목표) 등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확대 중

■ 전자제품(백색가전)

- 튀르키예의 주요 생산 및 수출 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오븐, 냉동고, 건조기로 '22년에는 해당 품목을 유럽 최대 규모인 3,284만 대 생산
 - Arcelik, VESTEL 등 국산 브랜드 외 Bosch, Siemens, Haier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튀르키예 내 생산 거점 운영 중
 - 수출량은 전체 백색가전 생산량의 78%인 2,577만 대 규모로, 전체 수출량의 50% 이상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시장으로 수출
- '2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2% 감소한 1,619만 대를 생산하였으며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한 1,794만 대를 기록

〈튀르키예 백색가전 생산량·수출량·판매량 추이〉

(단위: 대)

년도	생산량	수출량	판매량
'20년	29,196,367	21,984,889	7,763,250
'21년	34,080,409	25,927,342	8,480,429
'22년	32,847,370	25,772,620	8,338,139
'23년 상반기	16,193,372	11,197,440	5,024,098

자료 : 튀르키예 백색가전협회('23.11.1 발표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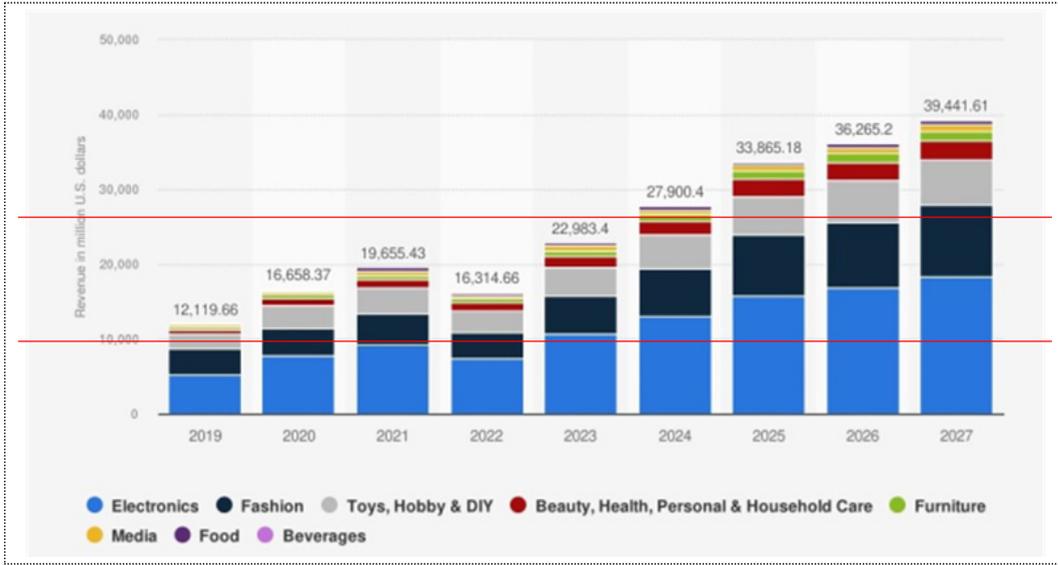
■ 건설업

- '1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러-우 사태 발발 등으로 인해 국내외 건설 프로젝트가 감소하며 최근 5년간 하향세
 - 자국 내 건설 프로젝트 다수는 건설회사에서 자금 회수를 위해 일정 기간 운영 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진행
- '23.2월 동남부 대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건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건설업의 회복 기대
 - 해당 지진으로 10개 주에 걸쳐 342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해당 지역에 80만 가구 건설 및 도시 인프라 재건을 위한 대규모 공사 진행 예정
- 또한 러-우 사태가 종료되면 튀르키예 건설업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총 80억 달러 규모 200여 개의 프로젝트 수주
 - 튀르키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 건설 프로젝트에 다수 참가한 경험이 있어 전후 복구사업 수요에 적극 참가할 것으로 예상
 - * 사례 :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전철 노선(우크라), 자포리자교(우크라), 노비우렌고이 국제공항 건설(러시아)

■ 유통산업

-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성장하며 전체 유통산업 성장을 견인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20년부터 급성장하였으며, 엔데믹 후에도 유통산업 규모는 지속 성장 중
 - 70% 이상의 높은 SNS 이용률을 기반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홍보,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마케팅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튀르키예의 연도별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예상)〉



자료: Statista.com('23.5월)

-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에 따라 오프라인 시장 규모는 점차적으로 하락 추세
 - 튀르키예 기업인 BIM이 매장 수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 진출 기업으로는 Migros와 Carrefour가 있음
 - * 오프라인 유통시장 비중 추이(자료: Statista) : 93.2%(’21) → 92.3%(’22) → 88.4%(’25년, 예상)

〈튀르키예 주요 오프라인 유통기업〉

기업명	분야	내용
MIGROS Migros	식료품, 생활 잡화	· 약 2,000~3,000개의 다양한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소매 유통 전문 업체 · 튀르키예 전역 매장 2,403개 보유
Carrefour SA Carrefour	식료품, 생활 잡화	· 프랑스 계열의 소매 유통 전문 업체 · 일반 Carrefour와 수입산 및 고급 식재료를 취급하는 Carrefoure gurme로 나뉨
BIM BiM	식료품, 생활 잡화	· 튀르키예 점유율 1위 디스카운트 스토어 · 튀르키예 전역 매장 8,519개 보유
TEKNO SA Teknosa	전자제품	· 튀르키예 최대 전자제품 유통기업 · 튀르키예 전역 매장 300개 운영
Vatan Vatan	전자제품	· 전자제품 전문 유통망, 튀르키예 전역 매장 140개 운영
BOYNER Boyner	패션	· 튀르키예 소매 유통 전문 업체 · 튀르키예 전역 매장 115개 보유

자료 : 무역관 자체조사('23.11.1 발표 자료 기준)

▣ 관광산업

- 관광산업은 국가 전체 GDP의 5.1%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23년 관광산업은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
 - '23년 9월까지, 튀르키예 관광 산업은 2월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관광객 방문(4,523만 명, 전년비 +12.4%)을 달성
 - 주요 관광 국가는 러시아(13.2%), 독일(12.4%), 영국(8.1%), 불가리아(5.5%) 등

〈튀르키예 관광객 수 및 관광수익 추이〉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년도	'19	'20	'21	'22	'23.1~9
관광객수	5,175	1,597	3,004	5,139	4,523
관광수익	38,930	14,817	30,173	46,477	41,999

자료: 튀르키예 문화관광부('23.11.1 발표 자료 기준)

- 튀르키예 정부는 기존의 유적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관광을 탈피하기 위해 미식, 의료, 문화유적, 비즈니스 관광 등 테마별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
 - * 개발 테마 : 미식 여행, 의료 관광(모발이식, 치과 등), 문화유적 관광, 자전거 투어, 성지 순례, 비즈니스 관광(MICE,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Exhibitions)
 - 이를 위해 전국의 관광 직업학교 학생들이 최소 3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각 테마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

▣ 주요 세제 정보

국가명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VAT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튀르키예	25%	2023.7.15일부 도입 금융업은 30% 부과	15%~40%		없음		20%	품목별 차등 (1%~20%)

▣ 진출 및 비즈니스 여건

국가명	법인설립 요건(투자비용)		최소자본금 (천달러)		현지인 고용의무		기타 참고사항
	대표	에이전트쉽	금액	적용분야	적용여부 (명칭)	분야	
튀르키예	해당 없음	-	5만TRY	회사 형태 별 차등	O (1:5 Rule)	외국인 1명당 현지 인 5명 의무고용	-

라. 정책·규제 환경

구분	주요 내용
중장기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경제개발계획(2019~2023) - 신경제정책(2021~2023) - 중기 프로그램(2024~2026)
주요 산업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튀르키예 산업·기술 발전 전략 2023 - 그린 뉴딜 행동전략 2023 - 개별 기업별 ESG 추진
통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및 주변국과 적극적인 FTA 체결 추진

▣ (중장기 정책) 제11차 경제개발계획(2019~2023)

- 자주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복지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 계획
 -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더 공정하게 분배하며, 더 강성하고 번영하는 국가 목표
- 튀르키예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 인적자원, 환경, 사법 부문을 포괄하는 전반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생산 효율성 증대, 자국 기술 보유 등을 통해 세계 경제대국 반열 진입을 목표로 함

〈제11차 경제개발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

분야	목표	주요 내용
경제	정부 재정, 국민소득, 대외무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주도 성장을 기초로 하는 자주적이고 강력한 경제 모델 설립 - 수입 의존도 감소, 관광 수입 증진을 통한 경상 수지 감소 추진 - 기술 이전 위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산업	산업경쟁력 및 생산효율 향상을 위한 구조적 변화와 복지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육성산업 위주 신용보증기금 집중 투입(제조업 분야에 전체 기금의 50% 투입) - 중소기업진흥청(KOSGEB) 자금의 제조업 분야 투입을 75%까지 증대 - 산업단지 내 장기 부동산 임대제도 활용

분야	목표	주요 내용
인적 자원	인적자원 육성 강화 및 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 복지 시행	- 5세부터 의무교육 시행 -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격차 해소
환경	환경보호 및 도시-농촌 간 개발 불균형 해소	- 지역별 개발사업 시행 통한 지역경제 발전 지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 -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간 협업을 통한 국민 환경의식 개선 - 자연재해 위험지역 선정 및 사전직업을 통한 자연재해 피해 예방
사법/행정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운영	- NGO 활동 지원 및 활성화 - 대통령실 민원센터(CIMER) 홍보 및 역할 강화 -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자료: 튀르키예 대통령실 전략예산위원회 제11차 경제개발계획

▣ (중장기 정책) 신경제계획(2021~2023)

- (정부 역할 강화) 규제 강화 및 정책 수립 분야 확대
- (국내기업 육성) 생산 품목에 대한 구매 보장, 실효적 투자 인센티브 부여
- (수출시장 확대) 유럽 시장의 침체에 대비해 아프리카 신시장 개척,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 성립 등 적극적으로 수출 경로 확대

〈신경제계획 2021~2023 분야별 주요 정책〉

재무 시스템	- 투자 수단의 다양화 및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임대증서 발행 및 투자시장 개선 - 금융기관 정책에 대한 감사 실시, 규제·감독기관 간 협력 강화 - 수출업체들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펀드 인프라 구축 및 지원구조 다각화 - 튀르키예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지원폭 확대
비즈니스 투자 환경	- 국가 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선 - 튀르키예 국부펀드의 국내외 투자자 유치 확대 - 해외물류센터를 설립 등 대외무역비용 절감 - 특혜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합리적인 경상수지가 지속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새로운 특혜무역 시스템 협의 -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과의 무역·비즈니스 환경 조성 - 스타트업의 빠르고 안전한 사업환경 구축을 위해 설립 절차 온라인화 - 국내외 할랄인증사업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공공 재정	- 정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해외 의약품은 전연 사회보장기관 (SGK)을 통해 구입 -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등 의료보건 분야와 국가 개발에 일조하는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의 투자 부문은 공공조달청(DMO) 구매 - 공공 부문 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소유 운송수단 및 연관 시설 설립 시 조달·이용·청산의 효율성과 성과 증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보건 서비스의 온라인화 및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관광) 5~10월에 국한되어 있던 관광 시즌을 확대시켜 12개월 내내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및 관광객 유치, 스포츠 관광 등의 인벤토리 발행 홍보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튀르키예 안전 여행 증명서를 홍보 및 시행하여 항공편 정상 운행 -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분야별 의료기관 및 의료진 정보를 쉽게 확인·예약할 수 있는 의료관광 포털 개설 - 무비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목적 방문 시 입국 절차 간소화 검토, 의료 관광객 케어 서비스 국가 차원에서 검토 및 실시 - (에너지) 에너지자원 탐사 작업을 가속화하여 흑해 지역에 위치한 사카리아 천연가스 매립지를 개발할 예정
국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산업 부문 고용 및 생산 장려, 수출과 내수시장을 중점으로 혁신 사업 모델 구축 - 발전용 소프트웨어, IT기술, 자동화 등 기술의 국산 사용 비율 향상 - 원자력기술 분야 R&D 활동 추진하여 기술의 국산화 추진 -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수출 중단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사전 확인하여 수출기업으로 잔류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장기 정책) 중기 프로그램(2024~2026)

- (경제성장) 거시 경제지표 안정과 고용 증대 및 한 자릿수 물가상승률 달성
- (구조개혁) 재무 안전성 확보와 재해 관리, 녹색·디지털 혁신

<중기 프로그램 2024~2026 분야별 주요 목표>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 재정, 소득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 통해 투자, 고용, 생산, 수출 장려형 성장 보조 -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합한 경제구조 구축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 시행 - 연평균 90만 명 고용 증대 및 실업률의 점진적 감소 - 2026년 실업률 9.3% 달성
물가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재정, 소득 정책 시행 - 양적 긴축과 대출 제한을 통한 통화 긴축 정책 - 튀르키예 리라화 안정과 대외적 위협요인 제거
국제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 거래 트렌드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녹색 및 디지털 혁신 장려형 정책 시행 - 튀르키예의 경쟁력 및 글로벌 유통망 내 입지 강화 -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활동 촉진 - 국산 요소 생산시설 건설
재무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하고 디지털 혁신에 맞춘 금융 시스템 - 자본시장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촉진을 통한 금융 안정 기대 - 리라화를 이용한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 개발 - 디지털 리라화 상용화를 위한 연구 추진
공공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 증대와 자원 배분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지속가능성 강화, 공공 재정을 거시경제지표 안정과 성장의 토대로 활용 - 중장기적 부채비율 개선

재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전에 재난상황, 후속조치 등 모든 재난 단계별로 행정적·법적·물리적·재정적 체계를 강화 - 재난 지역 재건을 위해 국산 녹색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기반시설과 주거시설, 상업시설 구축 - 국가 전반에 걸쳐 재난위험지역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도시 변화 프로젝트 수행, 재난 대응 능력 강화
그린 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법안 입법 절차 완료 예정 - 유럽연합 국경 탄소 규제 메커니즘과 호환되는 구조의 배출권거래제 시스템 구축 - 2053년 탄소 제로 달성을 위해 장기적 저배출 개발 전략 연구 수행 - 유럽 그린딜 대응 산업별 자원, 생산, 에너지 효율 관련 로드맵 수립
디지털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 중소기업 중점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지원 및 금융 메커니즘 마련 -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 수립
사업 및 투자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의 단순화 및 재구성, 고부가가치 창출, 수입 의존도 감소, 기술 역량 증진, 글로벌 경쟁력 향상, 녹색 및 디지털 혁신과 같은 요소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투자 평가 - 온실 농업 및 온실 개조 투자 장려 - 관광, 물류, 금융 서비스 및 컨설팅, 교육, 보건, 문화 콘텐츠(드라마/영화 및 애니메이션), 해외 계약 및 기술 컨설팅 등 외화벌이 서비스 무역 지원

▣ (산업별 정책) 튀르키예 산업·기술 발전 전략 2023

- '19.9월, 디지털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 기술 강국을 목표로 첨단기술, 디지털 전환, 인프라 중심 발전전략 마련
- 주요 정책 세부내용
 - 첨단기술 혁신 확대 : 5G 인프라 구축, 기업 대상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등 기술 혁신 기반 마련,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주요 기술 프로젝트 수행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발전 : 디지털 전환 센터 설립을 통한 R&D 및 디지털 기술 교육 실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 기업가 정신 강화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대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 법인세 면제 기간 연장 등
 - 인적 자원 개발 : 디지털 사립학교 설립, 디지털 기술 교원 확대 배치 및 프로그램 개설
 - 인프라 확충 : 산업단지 인터넷 속도 향상, 5G 데이터 표준 수립,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자율주행, 센서 기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입을 통한 에너지·물류 인프라 디지털화

▣ (산업별 정책) 그린 뉴딜 행동전략 2023

-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 발표 이후, 튀르키예도 지속가능한 녹색·순환 경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따라 '21년 7월에 그린 뉴딜 행동전략 마련
 - 9개 세부 실행 계획을 '23년까지 추진

- 주요 정책 세부 실행내용
 - EU 탄소국경세 대응 전략 수립 : 탄소국경세 책정 방식 연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연구,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녹색 순환 경제 구축 : 녹색 산업 지구 설립,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R&D 확대, 산업시설 대상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한 최적가용기술(BAT) 적용
 - 녹색 금융 : 환경 관련 프로젝트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 금융 지원 상품 마련
 - 에너지 공급 효율화 : 재생에너지 인증, 재생에너지 공급 앱을 통한 재생에너지 선택 권한 보장, 가정 및 산업 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지속가능한 농업 :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 농업 폐기물 재사용 R&D 확대
 - 지능형 교통 시스템 마련 : 철도·내륙 수로 운송 증가, 전기차 인프라 개발, 대체 연료 생산 및 사용 확대, 대중교통에서 전기차 사용 비율 확대
 - 기후변화 대응 : 토지 황폐화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토지관리 시스템 마련,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속
 - 녹색 외교 : EU 회원국과 녹색 관련 법률 연구 강화, WTO·유엔 기후협약 이행
 - 녹색경제 인식 강화 : 워크숍, 세미나 개최를 통한 녹색경제 정보 안내, 인식 제고 활동

▣ (ESG) 개별 기업 자율적으로 ESG 추진

- '21년 8월 기준, 정부 주도의 ESG 전문 추진기관(기구)은 설치하지 않았으나 기존의 '그린 뉴딜 행동전략 2023'에 자국 산업의 탄소 감축과 인프라 구축 계획 반영
 - 다만, 동 행동전략에는 개별 기업을 위한 ESG 평가지수 개발 등 세부 시행계획은 없어 다수의 유관기관 및 기업은 자체적으로 ESG 실천 및 평가 결과 발표
 - '20년 10월 2일,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에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원칙(Sürdürülebilirlik İlkeleri Uyum Çerçevesi)'을 발표함. 원칙의 준수 의무는 없으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공시해야 함
- 이스탄불 증권거래소(Borsa Istanbul, BIST)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한 지속가능성 지수를 도입하여 동 거래소에 등록된 상장기업들 중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이행도를 평가하여 발표
 - BIST 지속가능성 지수에 편입된 기업은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이 높고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것으로 분류
 - * 편입 조건 : ①ESG 점수 합계 50 이상, ②각 항목 점수 40 이상, ③최소 8개 하위 카테고리 26점 이상
 - 튀르키예의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BIST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를 받고 있으며, '22년 기준 61개 사가 지수에 편입됨('21년 58개사)

- 일부 기업은 내부적으로 ESG 관련 활동 체계를 구축 및 실천
 - GARANTI BBVA, 튀르키예 산업개발은행, SABANCI 등의 기업은 자발적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수 혹은 랭킹 평가를 받고 관련 평가보고서를 일반에 공개
 - SISECAM(유리 생산), '19년부터 매년 5%가량의 공업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여 사용 및 유리병 수거함을 이스탄불·앙카라 등의 주요 도시 곳곳에 설치

▣ (무역협정) 튀르키예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 튀르키예는 EFTA를 포함하여 24개국과 FTA를 체결 또는 발효 중이며 EU와는 관세동맹도 체결
 - 주요 제조산업 국가인 미국, 멕시코, 중국, 일본, 인도 등과는 미체결

〈튀르키예의 상품 FTA 발효국 현황〉

체결국	발효일자	체결국	발효일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92.9.1	몬테네그로***	'10.3.1
EU관세동맹	'95.12.31	모리셔스	'13.6.1
이스라엘	'97.5.1	대한민국***	'13.5.1
마케도니아	'00.9.1	파로제도	'17.10.1
보스니아	'03.7.1	몰도바	'16.11.1
모로코	'06.1.1	싱가포르	'17.10.1
팔레스타인	'05.6.1	말레이시아	'15.8.1
튀니지	'05.7.1	코소보	'19.9.1
이집트	'07.3.1	수단(미발효)*	'17.12.24(체결일)
알바니아	'08.5.1	영국	21.4.20
세르비아***	'10.9.1	레바논(미발효)*	'10.11.24(체결일)
칠레	'11.3.1	베네수엘라	'20.8.21
조지아	'08.11.1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 * 미발효국 / ** 서비스 FTA 추가 체결국 / *** 서비스 투자 FTA 추가 발효국

- FTA 체결을 협의 중인 국가는 MERCOSUR, 걸프아랍협력국(6개) 및 16개국
 - 일본,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며 중국과는 미협의

- ※ 풍부한 내수시장 및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은 중동 최대 소비국
- ※ 제조업 발달로 유럽 및 주변국의 생산기지 역할, 다만 중간재는 수입에 의존
- ※ EU 국가로부터 FDI 유치 활발, 서비스업 투자 확대 중
- ※ 경제협력, 역사적 연관성을 기반으로 한국과 긴밀한 관계 구축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특성) 젊은층 기반 거대 내수시장이며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은 중동 소비국

- '22년 기준 튀르키예 인구는 약 8,500만 명으로 '00년부터 매년 약 50만 명 이상 증가 추세로 내수시장의 잠재력이 높음
- 이 중에서도 '00년 이후 출생한 Z세대가 3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Y세대(30%), X세대(18%), 베이비붐(8%) 세대 순을 기록
 - * (Z세대) '90년~'20년 초 (Y세대) '80년 초~'90년 말 (X세대) '65년~'76년 (베이비붐) '55년~'63년
 -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 따르면 최소 '35년까지 튀르키예의 Y세대 인구의 비율은 유럽 및 주변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튀르키예 시장은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인 요충지로, 유럽은 물론 이슬람 문화권인 중동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인종적·역사적으로 깊은 유대관계 보유
 - 튀르키예 기업은 주변 중동, 중앙아시아에 걸친 두터운 네트워크 보유 증으로 제3국 공동 진출 시 이점으로 작용 가능

▣ (전략적 가치) 제조업 발달로 유럽 및 주변국의 생산기지 역할 수행

- 자동차, 백색가전, 의류 등 완제품 제조업은 발달하였으나 중간재는 수입에 의존
 - 최근 중간재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공공 조달 시 자국 내 생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토록 하는 현지화 전략 추진 중
 - * 부품·설비 수입 → 완제품 생산 → 주변국 수출하는 구조로 부품·설비 수입 수요 다대

- 유럽 중심의 수출('23.상반기 기준 40.5%)을 활발하게 진행하나 미국 및 이라크 등에 대한 수출도 증대시키고 있음

▣ (한국과 관계) 한류, 경제협력, 역사적 연관성 기반 긴밀한 관계 구축

- 한국전 참전 및 2002년 월드컵 계기로 친한국 성향
 - 21,212명이 전쟁에 참여, 966명이 전사 및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인이 보여준 환대 등으로 인해 많은 튀르키예인은 한국을 형제국으로 인식
- 한·튀 FTA('13.5월 상품, '18.8월 서비스 투자) 발효 및 통화 스와프 체결('21.8월, 약 20억 달러)에 따른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유지
- 형제국이라는 인식과 드라마, K-POP을 매개로 한 콘텐츠 위주의 한류 붐이 중동 국가 중에서는 높게 형성된 편
 - * BTS·블랙핑크·NTC127, 튀르키예 아이튠즈 음원 차트 1위 차지

나. 교역

▣ 수출입 동향

- 엔데믹 후 '21년과 '22년 수출입은 모두 증가했었으나, '23년 1~8월은 유럽경기 침체로 수출은 0.4% 감소한 반면, 귀금속 수입 확대로 수입은 3.4% 증가
 - 튀르키예는 중간재 수입 후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교역구조로 인해 주요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이 유사
 - 주력 산업 중 자동차, 기계류, 전기기기류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철강, 의류 등의 수출은 감소함
 - 자동차, 기계류 등 수출 증가 완제품의 중간재 수입 증가했고, 금 수입이 급증

〈튀르키예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1~8월
교역액 (증감률)	391,177 (△4.2)	389,153 (△0.5)	496,639 (27.6)	617,879 (24.4)	411,891 (1.8)
수출 (증감률)	180,832 (2.1)	169,637 (△6.2)	225,214 (32.8)	254,169 (12.9)	164,794 (△0.4)
수입 (증감률)	210,345 (△9.0)	219,516 (4.4)	271,425 (23.6)	363,710 (34.0)	247,097 (3.4)
무역수지 (증감률)	△29,513 (△45.3)	△49,879 (69.0)	△46,211 (△7.4)	△109,541 (137.0)	△82,304 (11.9)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23.11.1 발표 자료 기준)

- '23년 8월 누계, 튀르키예의 주요 수출시장은 유럽 및 중동국, 주요 수입시장은 유럽 및 아시아
 - 수출대상국은 EU 41.9%, 중동 16.9%, 기타유럽 15.7%, 아시아 7.4% 순
 - 수입대상국은 EU 28.5%, 아시아 25.0%, 기타유럽 22.8%, 중동 6.6% 순
 - 유럽시장은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는 교역구조이나 중국 및 한국시장은 수출보다는 수입위주의 시장이고 중동 및 아프리카는 수출 위주의 시장
 - '23년은 글로벌 원부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이 급증

〈튀르키예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순위	수출(FOB 가격 기준)				수입(CIF 가격 기준)			
	국가명	'21년	'22년	'23.1~8월 (증감률)	국가명	'21년	'22년	'23.1~8월 (증감률)
1	독 일	19,311	21,142	14,159(2.8)	러시아	28,959	58,849	31,722(△17.4)
2	미 국	14,720	16,885	9,810(△13.7)	중 국	32,238	41,355	30,670(9.4)
3	이탈리아	11,473	12,386	8,099(△3.5)	스위스	24,386	34,472	17,208(△29.6)
4	영국	13,704	13,005	8,020(△6.7)	독 일	21,726	24,033	18,833(22.9)
5	이라크	11,126	13,750	7,738(△10.1)	미 국	13,148	15,228	10,591(2.9)
6	러시아	5,774	9,343	7,464(62.8)	이탈리아	11,563	14,082	9,894(8.3)
7	프랑스	9,111	9,535	6,868(11.3)	인도	7,936	10,697	5,415(△28.2)
8	스페인	9,620	9,654	6,749(1.1)	한국	7,597	9,004	6,446(1.2)
9	네덜란드	6,765	8,026	4,927(△10.3)	프랑스	7,932	9,430	7,744(22.6)
10	루마니아	5,175	6,947	4,609(0.1)	스위스	3,055	15,336	15,698(155.5)
	전 체	225,214	254,169	164,794(△0.4)	전 체	271,425	363,710	247,097(3.4)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23.11.1 발표 자료 기준)

- 튀르키예의 제조업은 중간재를 수입·가공하여 완성품을 수출하는 구조
 - 정부에서 중간재의 자국 내 조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선이 미흡

〈튀르키예의 품목 유형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8월	
					금액	증감율
자본재	26,068	31,817	35,948	40,535	34,145	34.5
중간재	162,530	163,014	210,142	292,436	182,369	△ 6.5
완성품 (Consumption Goods)	21,196	24,117	24,947	30,482	30,397	64.2
기타	551	567	388	256	184	8.9
계	210,345	219,516	271,425	363,710	247,097	3.4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23.11.1 발표 자료 기준)

▣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 (수출)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류(가전, 기계부품 등), 의류, 철/비철금속, 광물류 등으로 10대 주력 제품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50~60% 차지
 - '23년 1~8월 기준, 10대 수출 품목 중 자동차, 기계류 부품, 전력/전기 기자재의 수출은 대폭 증가했으나 글로벌 수요감소로 플라스틱, 철강류, 의류 수출은 감소
- (수입) 주력 수입 제품은 석유, 천연가스, 중간재(자동차, 가전, 기계류부품), 석유화학(폴리머 등), 철/비철금속류, 귀금속(금 위주) 등
 - 수출용 완제품(자동차, 백색가전, 선박, 의류, 기계류 등) 생산을 위한 중간재(석유화학, 부품, 금속가공품 등) 및 석유/천연가스는 수입에 의존
 - 외환·금융시장의 불안 지속으로 튀르키예 국민이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금(金) 수입이 급격히 증가

〈튀르키예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	'22년	'23.1~8월		품목	'22년	'23.1~8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차량 및 차량부품 (열차 제외)	268	199	19.3	광물성연료, 광물류	965	463	△ 27.9
2	원자로·보일러· 기계류 및 부품	227	166	16.0	원자로·보일러· 기계류 및 부품	346	273	26.6
3	전기기기류 (전력기자재 등)	137	100	16.9	귀금속류 (금 위주)	235	247	121.8
4	광물성 연료, 광물류	164	98	△ 7.0	차량 및 차량부품 (열차 제외)	177	202	93.5
5	귀금속류	102	75	17.4	전기기기류 (전력기자재 등)	215	186	37.5
6	플라스틱류	116	70	△ 10.1	철 강	284	175	△ 18.4
7	편물의류 및 부속품	110	69	△ 5.6	플라스틱류	190	114	△ 16.8
8	철강제품	105	65	△ 6.2	유기화학 (레진 등)	111	64	△ 20.3
9	철강	146	58	△ 47.4	구리류	55	43	27.3
10	의류 및 부속품 (편물 제외)	85	56	△ 1.3	광학/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52	44	22.0

자료 : 튀르키예 통계청('23.11.1 발표 자료 기준)

■ 수입 규제

- '23.10월 기준 231건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를 발효 중이거나 발효 필요성 여부 조사 중(시행 중: 200건, 조사 중: 31건)
 - 철강, 플라스틱, 섬유 등 완제품 생산용 원부자재의 수입 억제를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제조업 가치사슬 강화 유도

〈튀르키예 對세계 수입 규제 조치 현황〉

(단위: 건)

산업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철강/금속		56	12	-	-	1	-
화학		6	2	-	-	-	-
플라스틱/고무		24	7	1	-	2	1
섬유/의류		75	4	-	-	3	-
전기전자		2	1	-	-	-	-
기계		15	1	-	-	-	-
기타		13	1	-	-	3	1
총계		191	28	1	0	9	2

자료: WTO 통계 및 현지 관보·통계 등을 종합하여 KOTRA 관할 무역관 정리('23.10월 기준)

- '23.10월 기준, 對韓수입규제는 총 18건으로 규제 중인 것이 15건, 규제 필요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이 3건임

* 품목별 : 섬유/의류 7, 철강/금속 4건, 기타 4건, 플라스틱/고무 2건, 화학 1건

▣ 비관세장벽

- 한-튀 FTA 특혜관세대우를 받은 수입 통관 건에 무작위로 원산지 재검증 요청
 - 원산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관세와 벌금 부과 후 원산지 입증 시 추징 벌금 반환
 - 튀르키예는 3년 내 수입 통관 건에 대한 원산지 재검증 요청 가능, 잘못 부과된 관세와 벌금 부과 가능

* 관련 법령 : No.4458 관세법 제197조 2항, No.3065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51조

- 수입산 직물에 대한 아조 염료 검사 성적서 제출 의무화
 - '21.3월부 아조 염료 성분 함량 관련 국제 공인 성적서 제출 혹은 현지 검사 시행 의무화, 기준 미달 제품은 수입 금지
- 일부 자동차부품 수입 시 E-MARK 인증 획득 및 부착 필수화
 - '22.1.1부 HS CODE 10단위 준 19개 품목에 대해 E-MARK 획득 및 이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WTO TBT에 통보되지 않은 미통보 규제사항
 - 이로 인해 수출기업들은 E-MARK 인증 획득 비용 및 이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기 위한 공정을 추가해야 함

다. 투자 진출

▣ (국가별) 외국인 투자 현황

- '22년에는 67.9억 달러, '23년 1~8월에는 32.9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유치
 - 동남부 지역 대규모 지진 발생 및 대선·총선 등의 이슈로 인해 '23년 1~8월 對튀르키예 투자는 전년대비 24.7% 감소
- 금액 기준 유럽 국가의 투자가 매년 전체의 70% 내외 차지
 -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러시아, UAE, 독일, 아일랜드, 벨기에, 프랑스 등
 - 유럽 기업은 튀르키예를 유럽 및 중동시장의 생산기지로 활용, 제조업 투자 다대
 - 최근 한국, 일본, 중국의 투자 진출은 활발하지 않은 편

〈對튀르키예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순위	국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1~8월	
						투자액	증감률
1	네덜란드	1,169	598	749	864	816	40.2
2	러시아	16	1	3	24	362	1,710.0
3	독일	467	287	479	697	336	3.4
4	UAE	33	65	449	273	313	2,508.3
5	아일랜드	41	237	221	371	205	173.3
6	벨기에	69	73	83	82	158	159.0
7	프랑스	158	168	127	174	143	32.4
8	룩셈부르크	135	425	368	295	115	△ 31.5
9	영국	874	474	1,392	401	104	13.0
10	미국	340	813	1,180	256	102	△ 30.6
24	한국	49	50	344	59	10	△ 47.4
총계		5,881	5,791	7,088	6,791	3,293	△ 24.7

자료: 튀르키예 중앙은행('23.11.1 발표 자료 기준)

▣ (업종별) 외국인 투자 현황

- '22년 기준 업종별 투자 현황은 서비스업 67.0%, 제조업 23.3%, 농업 1.5%
 - 글로벌 제약회사 GSK가 튀르키예에서 3.4억 리라(1,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호흡기질환 치료제 생산, CS Wind가 튀르키예에 두 번째 풍력 타워 증설
- '23년 1~8월의 경우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는 감소했으나, 제조업 부문이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49.7%, 제조업 49.1%, 농업 1.2%를 기록
 - 서비스 부문은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투자 유치가 대폭 감소
- '24년은 전통적 경제정책 시행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안정화가 기대됨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가 기대됨

〈주요 업종별 튀르키예 FDI 동향(Flow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8월
농업	23	17	148	107	35(-22.2)
2. 산업	2,106	1,188	1,850	2,134	1,619(39.7)
2-1. 광업	83	128	65	185	180(111.8)
2-2. 제조업	1,933	1,010	1,655	1,589	1,173(20.2)
○ 식음료·담배	229	137	158	559	126(-69.7)
○ 제지 및 인쇄	28	60	71	90	51(-29.2)
○ 에너지(석탄, 석유, 가스)	421	183	138	9	0(0)
○ 화학 및 의약	586	244	284	151	273(228.9)
○ 컴퓨터, 광학 및 전기전자	215	27	205	372	251(35.7)
○ 운송장비	175	31	429	65	129(207.1)
2-3. 전기 및 가스공급	89	49	129	360	266(171.4)
3. 서비스	3,752	4,586	5,100	4,550	1,639(-48.3)
○ 건설업	452	56	42	57	27(-46.0)
○ 도소매업	892	804	3,392	1,604	677(-20.4)
○ 운수 및 창고업	274	576	216	82	111(200)
○ 숙박 및 음식점업	117	77	115	331	35(-85.9)
○ 정보통신업	581	1,362	677	246	292(59.6)
○ 금융 및 보험업	900	1,400	177	1,794	238(-85.5)
○ 부동산업	229	64	26	44	52(147.6)
총계	5,881	5,791	7,088	6,791	3,293(-24.7)

자료: 튀르키예 중앙은행('23.11.1일 발표 자료 기준)

▣ 투자 환경 및 투자 장벽

- 2003년 6월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 4875)을 제정, 외국인 투자기업은 현지 기업과 동등한 권리 및 대우를 법으로 보장
 - 회사 설립을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재무부에 신고)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 일부 분야는 외국인 투자 제한
 - 라디오/TV 방송(방송법 Law No. 3984) : 라디오 및 TV 방송국 관련,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 중
 - 국내 민간항공(항공법 Law No. 2920) : 튀르키예 내 승객, 화물 및 우편의 수송은 자국 국적의 항공사에 의해서만 가능
 - 국내 해운(해운법 Law No. 815) : 자국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자국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자국민만 수행 가능
 - 선박 소유(무역법 Law No. 6732) : 튀르키예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선박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사회 의 과반수가 자국민이어야 가능
 - 전화 및 전보 서비스(통신법 Law No. 406) : 외국인도 통신 분야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다만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은 튀르키예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 필요(지분은 보유하지 않고 투표권만 보유)
 - 수산업(수산물법 Law No. 1380) : 수산물 채집, 낚시 등의 권한은 튀르키예 국민에게만 부여
 - 요트 선착장(관광 촉진법 Law No. 2634) : 요트 선착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튀르키예 국민 또는 튀르키예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필요
 - 인력 알선회사(고용법 Law No. 4904) : 자국민만 인력 알선회사를 설립 가능
 - 민간 경호 서비스 회사(사설 경호 서비스법: Law No. 5188) : 튀르키예 국민만 민간 경호 서비스 회사를 설립 가능
- 주요 투자장벽
 - 외국인 직원 1명당 자국민(튀르키예) 직원 5명 채용 의무, 이로 인해 제조업 이외의 무역업, 관광업, 지사(연락사무소) 등은 필요한 만큼의 본국 직원 고용이 곤란하며, 특히 튀르키예는 영어 사용에 제약이 많아 시장조사 및 본국 파트너사와의 원활한 소통 애로
 - 광업, 석유, 전력, 천연가스 분야는 튀르키예 정부의 라이선스 취득 의무가 있고 이를 발급받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

▣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성공 사례

- 효성, 스파텍스 유럽 시장 공략
 - 화학섬유 제조 전문기업인 효성은 2008년 2월 튀르키예에 연산 1만 5,000톤 규모의 현지 생산공장 건설
 - 튀르키예 근로자를 뽑아서 경북 구미공장으로 파견해 기술교육을 했고, 한글로 된 제품 생산 매뉴얼도 튀르키예어로 바꿔 제작하는 등 철저한 현지화 진행
 -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튀르키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고 빠르게 제품을 공급
 - 효성은 여러 차례 증설 투자를 통해 튀르키예 공장의 생산능력을 4만 톤까지 확대하였고 스파텍스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의류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지웨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스파텍스 증산을 위해 2022년에 5억 달러를 추가 투자 결정

라. 에너지 개발

▣ 대체 에너지 개발

- 2035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및 전력 인프라 등 전체 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프로젝트(2,000억 달러 규모) 추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로드맵 수립
 -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22년 튀르키예의 에너지 자원 수입액은 965억 달러를 기록
 - * '22년 총 수입액: 3,644억 달러/경상수지 적자: 1,002억 달러
 - 튀르키예는 원유 수요의 92%, 천연가스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원의 국산화 추진 중
- 튀르키예 정부는 발전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국내 전기 수요의 29%를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
 - 2050년까지 2만M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할 계획이며, 아크쿠유 원자력 발전소에 이어 시눔 및 트라키아에 발전소 추가 건설 추진 중

- ※ EU,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선진 시장
- ※ 가치 지향의 소비자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장
- ※ 에너지 가격 안정세로 '23년 EU 대외 무역 적자폭 완화세이나 EU FDI 투자액은 '19년 이후 저조한 흐름 지속 중
- ※ '23.8월 누계 기준 對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4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경기 둔화에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선전

가. 교역

▣ 한-튀르키예 FTA 상품 및 서비스·투자협정 체결

- (상품)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은 '12.8월 서명 및 '13.5.1부 발효, 상품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액 기준 10년 내에 우리 측은 99.6%, 튀르키예 측은 10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우리 측의 양허 제외 품목은 795개, 관세 감축 품목은 134개이며 튀르키예 측의 양허 제외 품목은 1,060개, 관세 감축 품목은 175개 품목
 - * 주요 양허 제외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신선과일, 양념 채소 등 민감 품목
 - 김치, 면류, 소주 등은 양허 대상 품목으로 분류, 對튀르키예 수출이 유망
 -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한·EU FTA 내용과 동일하게 하되, 일부 예외 쿼터 품목 확보 및 원산지 증명은 전면 자율 증명 방식 합의
 - * 한-EU FTA보다 완화 : 설탕과자, 초콜릿 함유 식료품 등/예외 쿼터 : 면사, 필라멘트 등 3개
- (서비스·투자) 동 협정은 '18.8.1부 발효
 - 對튀르키예 건설, 엔지니어링, 여가문화, 환경 등을 포함한 18개 분야(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에서 DDA(도하 개발 아젠다)보다 높은 DDA+ 수준의 개방 약속
 - 투자 개방의 경우 우리는 농축산, 에너지, 부동산 분야에서, 튀르키예는 농업, 어업, 광업, 부동산 분야에서 각각 정부의 정책 권한 확보
- '23년 상반기 기준 중국, 일본을 비롯해 대부분의 제조 강국이 튀르키예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은 관세 부문에서 유리

- '22.3.22, 제5차 한-튀르키예 FTA 공동위원회 개최
 - 우리 측은 튀르키예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우리 업계에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및 원산지 반복 검증(서류 중복 작성 및 수출 절차 지연) 자제 요청
 - 튀르키예 측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 한-튀르키예 수출입 동향

- '23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은 17.1%, 수입은 1.3% 증가
 - 중간재를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튀르키예 산업구조상 튀르키예의 수출이 확대되면 우리나라의 對튀르키예 수출도 확대되어 무역 흑자 지속 확대

〈한국의 對튀르키예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1~9월	
					금액	증감률
수출	5,298	5,544	7,026	7,723	6,953	17.1
수입	1,189	1,317	1,237	1,389	1,078	1.3
무역수지	4,109	4,227	5,789	6,334	5,875	20.6
교역규모	6,487	6,861	8,263	9,112	8,030	14.7

자료: 한국무역협회('23.11.1 발표 자료 기준)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튀르키예의 주력 수출 제품(자동차, 가전 등)의 원부자재 위주 수출
 - 주요 증가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전기기기와 부품, 고무류 등
 - * 우리나라 전체의 플라스틱, 철강 수출은 감소 중이나 對튀르키예 수출은 증가

〈한국의 對튀르키예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순위	HS	품목명	'21년	'22년		'23.1~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총액			7,026	7,723	9.9	6,953	17.1
1	72	플라스틱류	1,054	1,230	16.7	1,270	29.2
2	39	철강	1,564	1,388	△ 11.3	1,232	12.2

순위	HS	품목명	'21년	'22년		'23.1~9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3	84	기계 및 부품	897	975	8.7	999	34.3
4	87	자동차 및 부품	658	777	18.1	889	51.3
5	29	유기화학제품	797	917	15.0	749	15.4
6	85	전기기와 부품	334	328	△ 1.8	308	31.7
7	30	의료용품	367	529	44.3	298	△ 32.4
8	40	고무류	172	184	7.4	182	27.3
9	90	정밀/의료기기	161	176	9.6	157	20.3
10	54	인조장섬유	240	225	△ 6.3	130	△ 25.7

자료: 한국무역협회('23.11.1 발표 자료 기준)

- (수입) 주력 수입 품목이 수시로 변동하는 등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이 매우 미흡하여 매년 13억 달러 내외로 수입 중
 - 가죽제품, 의류, 과일류, 양식어류 등은 수입 확대 잠재력 보유

〈한국의 對튀르키예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순위	HS	품목명	'21년	'22년		'23.1~9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입총액			1,237	1,389	12.3	1,078	1.3
1	30	의료용품	354	441	24.7	327	5.4
2	84	기계 및 부품	131	148	12.7	148	37.7
3	62	의류 및 그 부속품	60	67	12.1	58	11.0
4	61	편물의류 및 부속품	65	70	7.5	55	△ 1.5
5	03	어류	14	38	170.6	53	51.3
6	28	무기화학물	48	74	54.6	40	△ 37.3
7	87	자동차 및 차부품	39	43	10.6	36	2.8
8	75	니켈과 관련 제품	33	38	17.4	32	△ 3.8
9	26	광, 슬랙	21	32	51.9	28	△ 7.9
10	42	가죽제품(소비재용)	18	28	56.4	23	9.9

자료: 한국무역협회('23.11.1 발표 자료 기준)

▣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 샌드위치 패널 생산설비 I사, 대지진 발생에 따른 임시건축물 자재 수요 선제적 대응
 - (현황) I사는 지진 재난지역에 공급될 컨테이너 주택의 주요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생산라인 공급 계약 체결
 - (성공요인) 대지진 발생으로 대규모 임시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였고, 직접적인 완제품 또는 자재 납품의 경우 중국산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장비 수출에 집중
 - (시사점) 현지 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필요

- 김 재배 및 제품 생산·공급 K사, 신규 수요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
 - (현황) K사는 튀르키예 첫 수출 기록
 - (성공요인) 김의 경우 현지에 생소한 시장이었으나, 할랄 인증 등의 현지 시장 진출에 용이한 조건을 사전에 준비한 후, 스시 수요 증가 및 K-드라마 열풍 등으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려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
 - (시사점) 현지 시장 진출에 대한 선제적 준비 및 시장 기회 요인 포착이 중요

-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K사, 튀르키예 진출을 통해 신규 시장 개척
 - (현황) K사는 기존에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미국과 유럽 생산기지에만 납품했으나, 튀르키예에 진출 후 인도,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
 - (성공요인) 세계 주요 자동차 브랜드의 생산기지인 튀르키예 시장 직접 진출을 통해, 현지 자동차 완성차 기업과의 네트워킹 강화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인근 시장 수요 공장에도 추가 납품 기회 발굴도
 - (시사점) 주요 수요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납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약하여 글로벌 시장 확대에 성공

나. 투자

▣ 진출 현황

- '22년 對튀르키예 신규 법인 수는 9개, '23년 1~10월에는 1개임
 - '22년 기준 최근 5년간 누적 투자 신고 규모는 11.4억 달러이며 '16년 투자 진출이 가장 활발하였음

- '21년에는 합작투자로 진출한 기업이 파트너사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기 위한 증액 투자로 인해 전년 대비 금액이 대폭 증가함
- '24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 및 코치(튀르키예 최대 기업)와 앙카라 인근에 생산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 예상

〈한국 對튀르키예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건, 개 사)

구 분	'18	'19	'20	'21	'22	'23.1~10월
투자금액	294	202	107	397	114	34
신고건수	70	62	64	61	73	27
신규법인수	9	9	4	7	9	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3.11.1 발표 자료 기준)

- 對튀르키예 주요 투자 분야는 자동차, 제철, 전자, 섬유 등 제조업 위주
 - 제조업 위주의 對튀르키예 해외직접투자 누계금액('84~'22년)은 34.4억 달러로 제조업 15.3억 달러, 정보통신업 7.3억 달러, 건설업 6.2억 달러, 도소매업 4.0억 달러를 차지
 - '23년 1~10월 기준, 신규 법인은 제조업 1개 사임

〈'23년 10월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업종대분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농업, 임업 및 어업	-	-	-
제조업	1	33	11
건설업	-	-	2
도매 및 소매업	-	1	5
정보통신업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3.11.1 발표 자료 기준)

- 튀르키예는 유럽 및 중동국 진출의 생산기지로 활용 유망
 - 튀르키예는 완제품 생산기술은 우수하나 핵심 부품 생산기술은 부족, 정부에서 해외 부품제조기업의 적극적인 생산공장 진출을 희망
 - 기 진출 우리 기업도 완제품 생산용 중간재 제조업 분야 비중이 높으며 튀르키예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인근국 수출도 병행하는 기업 다수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 성공 사례〉

(단위: 백만 달러)

기업명	주요 활동	투자 규모	비고
롯데케미칼	'19년 현지 대리석 제조사 벨렌코 인수	110	연산 23만 장
CGV	'16년 현지 최대 엔터테인먼트 인수	670	800스크린
현대자동차	'97년 이즈미트 자동차공장 합작투자 '12 공장 증액 투자, '14년 증산 실시	255.5	연산 20만 대
	'21 합작법인 키바르홀딩스 보유 지분 27% 추가 인수	280	지분 27%
포스코	'10년 부르사 철강재 가공 서비스	23.5	연산 17만 톤
	'13년 이즈미트 스테인레스 스틸 냉연공장	350	연산 20만 톤
효성	'07년 이스탄불 인근 스판덱스 생산공장 설립 '20~'22년 생산공장 증설	160	연산 4만 톤

자료: 이스탄불 무역관

■ 공급망

- 튀르키예는 '22년 수출금액 기준 독일, 중국에 이어 전 세계 중조 수출국 3위 기록
 - 튀르키예 내 중조 생산기업은 3개 기업이 독과점 체제를 형성
 - * 중조 생산기업 : Eti Soda, Kazan Soda, Sise Cam 등 3개 사 독과점
 - 튀르키예에서 생산된 중조는 일본계 M상사와 장기계약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조 수입의 10%를 차지
- 튀르키예는 세계 붕소(Boron) 매장량의 73%를 차지하며 최대 생산 및 수출국
 - 유리, 세라믹, 안료, 합금, 비료 생산 등에 사용되는 필수 원소로 '22년 기준 약 10억 달러 수출
 - 붕소 생산 및 판매는 국영기업인 에티마덴(Eti Maden)사가 독점

다. 협력 유망 분야

■ 에너지 및 첨단 산업

-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대응을 위해 양국이 과학기술 및 R&D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18년 5월 정상회담)
 - ①태양광, 원전 등 신에너지 분야 ②테러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③방위산업시스템 분야 신기술, ④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등을 협력과제로 논의
- 튀르키예 정부는 '30년까지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25% 미만으로 낮추고자 원전 건설, 천연가스 채취, 재생에너지 확대 등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

- 특히, 원자력으로 국내 전기 수요의 29%를 생산할 계획으로, '50년까지 2만M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3개의 프로젝트 추진 중
 - * 추진 원전 프로젝트 : (1호) 아크쿠유(러시아 수주, '26년 완공 예정), (2호) 시놉, (3호) 트라키아
- 제2호 원전인 시놉(Sinop)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중국이 튀르키예 정부와 협상 중
 - * 언론 등에 따르면 트라키아 원전은 중국과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
- 또한, 흑해 사카리아 천연가스 전(매장량 : 7100억m3)에서 '23.4월부터 연간 약 35억m³ 수준의 채취를 시작했으며 4년 안에 150억m3 수준으로 늘릴 계획
- 튀르키예 정부는 '23년까지 방위산업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270억 달러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방위산업은 튀르키예 정부 육성산업으로 급성장 중
 - 한국 소부장 방산 제조기업의 현지 방산 Value Chain 참여, 방위산업 협력을 통한 중동 및 제3국 공동 진출 방향 모색 필요
 - 한국 정밀기계 분야의 기술력과 튀르키예의 생산가공 능력 및 저임금 노동력 활용
 - 부분품 수출, 합작투자, 현지 생산법인 설립 등 협력을 통한 현지시장 공략, 중동지역 핵심 거점화 및 주변국 공동 진출전략 수립 필요

▣ 인프라 사업

-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 유망
 - 양국이 추진 중인 생태산업단지 협력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확장하고, 공통관심사인 전기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필요
 - 한국의 IT 역량을 튀르키예의 유통, 교통망 등과 접목해 튀르키예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 방향 제시
-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 복구사업 추진 중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 산업단지 개발 등 도시 인프라 시설 관련 프로젝트 추진 예정
 - 우리의 우수한 스마트 시티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 및 관련 대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진출 기회 지속 모니터링 필요
- 고속열차용 객차 수출 및 할갈리~게브제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 및 철도협력 업무협약(MOU) 개정 등 양국 협력기반 강화('20.9월)
 - 민관협력사업(PPP) 개발, 고속차량 기술이전 및 공동생산, 철도안전 협력 등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협력사업 추진기반 확대

Chapter



진출전략



- ※ 튀르키예 자동차, 가전, 방산 등 주력산업 대상 글로벌 가치사슬(GVC) 진입
- ※ IT강국 이점 활용,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IT 분야 선제적 대응
- ※ 에너지, 첨단 산업 등 기술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 ※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 및 한류 활용, 소비재 틈새 시장 진출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 유지 전망 •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대체 에너지 생산 역량 확대 • 자국 산업 고도화를 위한 보호무역 강화 • 러시아와 중동, 서방 간 실리외교 추진
E 경제 (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GDP 예상 성장률은 3.7%로 '23년에 비해 소폭 성장 예상 • 전통적 경제정책으로 회귀, 금리 지속 인상 예정 •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며 환율 상승세 다소 진정 기대 • 부가세 및 유류세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 상승
S 사회문화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층 기반의 거대 내수시장 형성 • 비대면 거래 활성화, 모바일 커머스 인프라 급속 확대 • K-POP을 매개로 한 콘텐츠 위주의 한류 붐 높게 형성
T 기술 (Techn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도시별 기후 및 특성에 맞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 추진 • 정부·산업 전반 디지털 도입을 위한 빅데이터·AI 기술 수요 상승 • Industry 4.0 대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 자동화 추진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튀르키예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밸류체인(GVC)상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 완제품 생산용 중간재 수입 수요 다대 •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 한류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정한 환율 변동 수시 발생, 미래 예측 어려움 • 주변국과의 종교적·정치적 마찰 발생 가능 • 중저가 위주의 자국산 소비재 선호 경향
기 회(Opportunity)	위 험(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日 FTA 미체결, 관세 부문에서 한국 다소 유리 • 온라인으로의 소비 및 마케팅 방식이 증가 • 많고 젊은 소비층 • 지진 피해지역 대규모 재건사업 진행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수입 규제 시행 • 품질 경쟁력 향상된 중국산 제품 유입 확대 • 중간재 현지화 정책 강화로 현지 진출 제약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튀 FTA 활용한 수출용 완제품 제조업체 대상 • 중간재 공급 확대 • 중간재 납품 이외 기술 분야 협력 모색 	글로벌 파트너링 협력 강화
ST 전략 (차별화 전략-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호감을 통한 K-브랜드 인지도 확대 • 현지 기업과 협력, 한-튀 문화와 융합한 제품 개발 	한류 활용, 소비재 틈새시장 공략
WO 전략 (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IT산업 진출 • 온라인 및 SNS 마케팅을 활용한 진출 • 지진 재건 프로젝트 참여 	정부 프로젝트 참여, 디지털 협력 확대
WT 전략 (방어/철수-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재 현지 협업 수요 발굴 및 제3국 시장도 진출 •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분야 등 미래 시장 진출 추진 	현지 진출 및 생산 협력

2024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지진 지역 재건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지역 재건 프로젝트 참여 기회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고급 중간재 및 관련 생산 장비 수출 - 선진 도시 인프라 시스템과 탄소중립·헬스케어를 가미한 '에코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 기회 모색
글로벌 파트너링 협력사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고도화 및 생산성 제고 노력을 위한 신규 협력 분야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자동차/가전업체 대상 부품 공급 확대 - 정부의 현지화 전략에 대응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
한류 활용, 소비자 틈새시장 공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 활용, 한국산 인지도 확대 및 젊은층의 소비재 구매 확대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경쟁업체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에 착안한 후발업체로서의 차별화 전략 추진 - 장기적 관점의 현지 푸드체인·뷰티스토어 협업,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한국 소비재 브랜드 인지도 확대
차세대 디지털 전환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제조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IT 분야 진출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수요 증가 활용, 우리 기업의 성공 사례로 현지 지자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진출 -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플랫폼, 사이버 보안 등 빅데이터와 관련된 분야 응용 프로그램 개발 협력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체계 공동개발사업 등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개발 품목 발굴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방산 분야의 중동지역 생산 거점화 및 주변국 공동 진출

한-튀르키예
파트너십 강화

주력 제조산업의 고도화 수요 및 정부의 미래산업
육성 수요 발굴, 양국 간 공동 성장 노력

3-1. 지진 피해 재건 사업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3.2월 강진 발생으로 동남부 10개 주의 거주 주택 및 생활 인프라 붕괴
- 지진 피해 지역에 총 8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23년 말까지 32만 가구 완공 예정
- 재난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상하수도 시설 및 공공시설, 에너지 인프라 등의 프로젝트 추진 예정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3.2월 동남부 지역 10개 주에 규모 7.8의 강진 발생, 4만 6,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20만 명 거주 주택 및 생활 인프라 붕괴
- 환경도시부-TOKI(튀르키예 주택개발청) 주도로 6개의 튀르키예 국적 건설사(Kalyon, ANT Yapi, NKY, KUZU Grup, Ege Yapi, Dome)들이 대거 참가하여 지진 피해 지역 재건 사업 추진 예정
 - 지진 피해 지역에 총 8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23년 말까지 32만 가구 완공 예정
 - 재난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상하수도 시설 및 공공 시설, 에너지 인프라 등의 프로젝트 추진 예정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건축 자재의 경우 우수한 퀄리티 및 안전성을 장점으로 프로젝트에 접근
 - TOKI의 경우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 저가형 주택을 주로 짓기에 한국 중간재에 대한 수요는 매우 낮았음
 - 그러나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해 주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고급 중간재에 대한 수요 발생이 예상됨
 - 직접적인 자재 수출과 더불어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재 생산장비 수출 기회도 모색 필요
 - * 지진 발생 직후 컨테이너 임시주택 수요가 급증, 가격 차이로 컨테이너 주택 직수출은 힘들었으나, 주요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제작 장비를 수출한 바 있음

- 튀르키예는 스마트시티 확대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 피해 지역 도시 인프라 재건 시에도 스마트시티에 기반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음
 -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튀르키예 최대 수출국인 유럽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여 탄소중립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의 풍부한 신도시 개발 경험과 IT 강국이라는 장점과 함께 탄소중립과 헬스케어를 가미한 '에코 스마트시티' 사업을 중심으로 진출 기회 모색 필요

성공 사례 및 진출 기업 전략

- ▶ 지진 발생 초기, 대규모 임시주택 수요를 예측한 우리 기업 A사는 컨테이너 주택의 핵심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생산라인 수출에 성공
- ▶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은 안정성 강화 및 스마트 시티 건설 등과 관련된 고급 자재 및 첨단 기술 수요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중

3-2. 글로벌 파트너링 협력사업 강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글로벌 제조업체, 튀르키예를 유럽향 생산기지로 활용 중
 - * 글로벌 완성차, 전기전자 생산업체는 튀르키예에 직간접 진출 방식을 통해 공장 설립
- 로컬 대기업은 탄탄한 내수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IT, 가전 등 분야에서 성장 중
 - * 아르첼릭, 베스텔 등 로컬 가전생산업체는 자국 내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해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 중
- 풍부한 완제품 생산 여건 대비 역내 중간재 조달 여건은 불충분한 상황으로, 중간재 공급을 통한 한-튀 기업 간 글로벌 파트너링 수요 다대
- 미래차 생산 설비, 스마트 공장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신사업 기회 확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탄탄한 내수시장 및 유럽과의 관세동맹을 기반으로 한 튀르키예는 글로벌 기업의 유럽 생산기지로 자리매김
 - 포드, 피아트, 현대차 등 14개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튀르키예에 생산공장을 설립했고, GE 등 가전업체는 로컬업체와 OEM 제휴를 통해 간접 진출 중
 - 이와 더불어 튀르키예 가전(아르첼릭, 베스텔 등), IT(투르크셀, 투르크텔레콤 등), 송배전 업체(국영기업 위주) 등은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확대 성장 중

- 자국 내 중간재 생산 여건은 완성품 제조 여건 대비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완성품 제조를 위한 중간재는 자국 내 생산보다 수입품에 의존
- 유럽·중동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튀르키예는 내연기관 차량 이외에 전기차 분야에 집중 투자 중
 - 포드 전기차 배터리 공장('22년 완공, Kocaeli지역), LG에너지솔루션-포드-코치그룹 전기차 배터리 공장('23.2월 MOU 체결, Ankara지역)
 - 차량가격의 45~60%를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특소세율 대비 전기차는 이를 최대 10%까지 인하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세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25% 수준('22.7월 발표)으로 책정함으로써 전기차산업 육성 추진
- 현지 글로벌 가전업체를 중심으로 Industry 4.0 대응을 위한 공장 자동화 추진 중으로 관련 기계·장비 수요 확대
 - * 세탁기공장의 스마트공장 시스템 Atolye4.0(Arcelik사), e-F@actory(Mitsubishi 현지 법인)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제조업 고도화, 중간재 국산화 및 미래전략산업 등에 대한 현지 기업과의 기술협력 확대 도모
 - 튀르키예는 완성품 제조업 위주로 산업 발달, 전체 제조의 60%를 수출하고 있으나 중간재의 수입 의존도가 74%로 매우 높음
 - 이에 튀르키예 정부는 Industry 4.0 액션 플랜('19년) 및 산업기술 발전전략 2030을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화 및 고부가가치화 정책 시행 중
 - 따라서 대형 자동차, 가전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품 공급 지속 추진은 물론 제조설비 수출 및 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현지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발굴 수요 적극 대응
 - 또한 에너지, 의약, 방산 등 핵심 산업의 정부 조달 또는 프로젝트 허가 시 자국산 의무 사용 비율을 적용하는 등 중간재의 자국 생산 비중을 높여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무역 역조 개선 도모 중
 -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요 다대

〈튀르키예의 자국산 사용을 위한 의무 조치 사례〉

구 분	내 용
에너지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시 자국 내 생산품 사용 우대
의약	의약품 정부 조달 참여 조건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차별 항목 반영
철도	철도 관련 입찰 및 공급 계약 체결 시 51% 이상을 자국 내 생산품 사용
방산	방사청 무기 구매액의 50%는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 금액 조건 등

- 미래차, 방산, 신재생에너지, 공장 자동화 설비 등에 대한 수요 높음
 - 단순 제품 수출에서 벗어나 기술 공동 개발, 자금 투자, 판매 대행 등으로 협력 분야 다양화 추진
 - 자율주행 시스템, HVAC,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 등 미래 상용차 분야 제조 협력을 통한 미래 상용차 시장 선점
 - GP 핀포인트 상담을 통한 현지 가전업체 공장 자동화 솔루션, 용접기기, 산업용 로봇 등 생산설비 수요 대응

3-3. 한류 활용, 소비재 틈새시장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 도래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
 - * '22년 튀르키예의 온라인 시장은 전년 대비 117% 성장한 204억 달러 규모
 - * '22년 튀르키예의 전자상거래는 70%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짐
- 지속적인 환율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소비자 구매력 하락 및 저가 제품 선호 확대
- 기존 경쟁업체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차별화 전략 수립,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 현지 진출
 - * 한국 소비재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부족으로 장기적 관점의 브랜드 마케팅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 모바일 커머스 인프라 확대를 통해 '22년 튀르키예 온라인 유통산업 규모는 2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7% 성장
 - 온라인 유통산업 성장에 따라 MZ세대 대상 인스타그램 홍보, 라이브 커머스 등 디지털 마케팅 활용 증가

〈튀르키예 주요 온라인 유통망 현황〉

기업명	내용
 trendyol.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부터 판매지역을 유럽으로 확대하며 독일에 첫 유럽 법인설립, 이스탄불 공항 인근에 해외배송용 품목 전문 물류센터 설립 · 유럽 2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800여개 브랜드 판매 중 TY Express 킷커머스 서비스 실시 등으로 튀르키예 온라인 유통망 중 최대 점유율 (48.6%) 보유
 hepsiburada.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튀르키예 내 가장 적극적으로 크로스 보더 서비스 확대, 물류와 통관을 모두 Hepsiburada가 수행하여 국내 판매자-해외 소비자, 국내 소비자-해외거주 판매자 연결 가능 · 튀르키예 내 온라인 유통망 점유율 18%로 2위 기업
 amazon Turk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특급 배송, 아마존 OTT 서비스 제공, 특별 할인 포함 '아마존 프라임'으로 차별화 마케팅 시도 · 튀르키예 내 이용자 증가에 따라 '23.9월 520억 리라(1.8억 달러) 투자하여 아마존 튀르키예 물류센터 건설

- 지속적인 환율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하락으로 저가 제품 선호 확대
 - BiM, Sok 등 식료품 할인 판매점, LC Waikiki, DeFactogain 등 튀르키예 자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짐
 - 튀르키예 소비자의 저가 제품 선호, 중국산 대비 부족한 가격경쟁력은 한국 소비재의 현지 유통망 입점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 중
- 전문 인플루언서 및 SNS 전문 마케팅기업 성장
 - 분야별·상품별로 영향력 있는 전문 인플루언서 증가 추세
 - Insider사 등 튀르키예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급성장
 - MZ세대는 대중매체보다 이러한 SNS 콘텐츠 영향으로 구매하는 성향 확대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지속적·장기적인 관점의 현지 대형 유통망 협업 및 MZ세대 대상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가성비 전략 추진
 -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었으나, 한국 식품·소비재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부족으로 한국산 소비재 수요 확대 제한적
 - 장기적 관점의 인플루언서·SNS 마케팅을 통한 한국산 제품 인지도 강화 및 튀르키예 소비자 대상 부족한 가격경쟁력을 뛰어넘는 한국산 제품의 가성비 강조
 - 대형 유통망, 현지 푸드체인, 뷰티 스토어 협업을 통한 시식/시연 등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시장 접근 필요

- 화장품 및 생활용품, 요리용품, 문구용품 등 일반소비재 진출 기회 다대
 - 화장품 : K-Beauty에 대한 관심도 증대로 한국산 뷰티 제품 수요 지속 발생
 - 일반소비재 : 언택트 문화 확대로 수요가 상승한 홈코노미 용품, 요리 관련 용품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커피머신 등) 및 수입 규제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문구용품 등
- 현지 식품 유통 업체에 따르면, K-콘텐츠 열풍으로 한국 음식, 특히 라면에 대한 현지 수요가 매우 높으나, 튀르키예의 높은 GMO 금지 규정으로 인해 수출 불가
 - * 튀르키예는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0%로 엄격히 제한 중(유럽 0.9%)
 - 튀르키예 뿐만 아니라 중동·유럽 국가 등에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산 중이기에, 튀르키예의 지리적 이점을 고려할 때, 튀르키예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튀르키예 및 인근 국가 시장 동시 진출 도모 고려 필요

3-4. 차세대 디지털 전환 협력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디지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디지털 발전전략 추진
 - * '산업·기술 발전전략 2023'(19.9), '국가 AI전략 2021~2025'(21.8) 등
- 정부·산업 전반 디지털 전환 확대에 따른 빅데이터·AI 기술 관련 수요 상승
- 국가 스마트시티 전략에 의거, 각 도시별 기후 및 특성에 맞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
 - 그러나 각 도시의 스마트시티 전략과 로드맵은 상호 호환성이 있도록 통합 추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정부는 '18년 7월, 대통령 산하에 디지털전환사무소(Digital Transformation Office)를 설립하고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및 추진 중
 - '21년 8월, '국가 AI전략 2021~2025' 발표, 스마트 정부 시스템 확대 방안 및 빅데이터·AI 기술 활용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 방향 제시
 - * 'Digital Turkey Portal' 구축을 통해 641개 기관이 정보 서비스, 통합 전자 서비스, 결제 서비스 등 5,170개 서비스 제공 중이며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예정

〈튀르키예 국가 AI전략 2021~2025 주요 내용〉

목표	세부 내용
AI 전문인력 양성	* 대학 내 AI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학사, 대학원 과정 확대·심화 *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알고리즘, 코딩, AI 과목 개설
R&D 및 기업 지원	* AI 스타트업 전문 펀드 확대 * AI R&D 혁신 센터 및 관련 클러스터 설립
데이터 인프라 구축	* 연구원·기업 대상 공유형 AI 기술장비 지원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알고리즘 아카이브 구축·배포 * 개방형 데이터 공유 확대
AI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AI 기술 관련 규정, 데이터 보안 규정 마련 * AI 기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데이터 확보, 학술 연구 진행
글로벌 협력 강화	* 유럽연합 주도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 AI 기술 선도 국가·기업과 협력 증대
AI 기반 공공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내 AI 생태계 조성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AI 사용 능력 확대

-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 도시 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구축하되 각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통합
 - 교통(Mobility), 수자원 관리, 에너지, 공공 안전 등이 미래 스마트시티 산업의 주요 추진 대상

〈Turkiye Smart Cities Strategy and Action Plan 2020~2023〉

비전 : 삶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전략 목표 1	전략 목표 2	전략 목표 3	전략 목표 4
스마트시티 생태계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	제조기술, 솔루션 및 서비스 부문의 스마트시티 전환 역량 강화	스마트시티 아키텍처 수립	스마트시티 이해 당사자의 참여 확대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전반적 재무 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전환 역량 강화	제조기술, 솔루션 및 서비스 부문의 협력 모델 구축	스마트시티 솔루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용 확장 스마트시티 요소들 간의 통합 서비스 확대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혁신 벤처와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공동 구축 협력을 통한 튀르키예 시장 및 중동·유럽 시장 진출
 - R&D 장비 보조금, 노동 허가 지원과 같은 정부의 기술개발특구(Technology Development Zone)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튀르키예 내 수요가 높은 헬스케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사회 관리 프로그램 개발 협력 및 합작법인 설립

현지 AI 기술 기업 인터뷰

Q1) 튀르키예 내 디지털 전환 트렌드

-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전환사무소 설립 및 관련 정책 시행을 통해 정부·기업 전 분야에 걸쳐 AI·빅데이터 활용이 높아지고 있음
- AI 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지원 정책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정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술 활용을 통한 행정, 제조 공정 효율화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

Q2) 국내 진출 기업에 대한 조언

- 한국의 기술력, 튀르키예의 인적자원, 지리적 이점과 같은 양 국가의 장점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상호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 ICT산업은 현지 정부 전략 육성 산업으로, 한국 기업이 튀르키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기대해볼 수 있음
- 아울러, 한국 ICT기업과 현지 기업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시 PPP 방식과 같은 자금 조달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견고한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할 것

- 튀르키예 지자체와 공동 투자 등 협력,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창출하여 이를 민간 부문 또는 프로젝트 규모 확대 유도

* 국토부 K-City 지원사업 등을 통한 실증사업 활용

- (유망 품목 1) 정부의 스마트시티 구축 5개 우선 분야인 모빌리티, 에너지, 수자원, 빌딩, 공공 안전 프로젝트에 집중
 - 모빌리티 : 지능형 교통 시스템, 공유 모빌리티, 자율주행 시스템 분야
 - 에너지 : 스마트그리드, 미터링 및 신재생에너지(도심 쓰레기 처리 등)
 - 수자원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관리, 상하수도 시스템 관리
 - 빌딩 : 지진과 관련된 대응 시스템
 - 공공 안전 : 데이터 통합센터 구축을 통한 CCTV 통합 모니터링 및 활용 등
- (유망 품목 2)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클라우드 플랫폼,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관련 소프트웨어,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빅데이터 관련 응용 프로그램

3-5. 방위산업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3년 튀르키예 국방예산은 158억 달러 규모로 전년도 대비 45% 감액
- 대외적으로 국방비 총액을 줄이고 획득정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방비와 별도로 '전력증강기금(Turkish Armed Force Foundation)'을 조성하여 운영
- 튀르키예 정부는 방산제품 중간재의 현지화 생산 확대 정책 추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2년 튀르키예 국방예산은 158억 달러 규모로 전년도 대비 45.5% 감소
 - 방산제품의 자국 생산 비중 80% 달성을 목표로, 관련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예정
 - 국방예산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장비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음
 - '15년 70억 달러였던 장비 구입 예산이 '20년에는 177억 달러로 증가(153%↑)
- 최근 강력한 자국산 제품 우선구매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중심 진출전략 수정 필요
 - 방사청의 국내 부품 의무 조달(무기 구매액의 50% 이상) 정책 및 산업 협력 프로그램 (SKO, Sanayi Katilim Offset) 등을 통해 해외기업의 현지 생산과 자국 기술 발전을 유도하며 방위산업 중간재의 Value Chain 확충 추진
 - * 산업 협력 프로그램(SKO, Sanayi Katilim Offset)은 항목에 따라 A(튀르키예산 제품 의무 사용), B(튀르키예 중소기업 제품 의무 사용), C(튀르키예 기업 R&D 의무 참여)로 나뉨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우리 정부의 개발계획에 있는 무기와 튀르키예 정부가 수요로 하는 무기를 비교, 공동 개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
 - 한국 정밀기계 분야의 기술력과 튀르키예의 완제품 조립 능력 및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완제품 수출보다 부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과 협력을 통한 합작투자 및 현지 생산법인 설립 등 수출 위주 전략에서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 전략
 - 특히, 튀르키예의 중동지역 생산 거점화 및 주변국 공동 진출 전략 수립
- (유망 품목) 우리 기업의 수출 경험이 있는 완제품용 중간재
 - 전차, 헬리콥터, 드론, 자주포, 군용 특장차, 전자제어 시스템 등
 - * '23년까지 BMC사(튀르키예)는 알타이 전차 250대 생산 예정, 변속기, 장갑, 포탄, 탄약 등 부품 및 장비 진출 유망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선정사유	한국산 제품이 유럽산 제품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중으로 튀르키예의 주형 수입국 55개국 중 한국 4위 기록
	시장동향	튀르키예 플라스틱 사출기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70%가량으로 기기 외 금형 역시 수입산 비중이 높은 편
	경쟁동향	자국산 제품은 주로 중동 대상 수출용이거나 저가의 제품 생산 시 사용하고,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는 유럽(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산 제품을 사용
	진출방안	중국산 제품이 점차 품질로 따라오고 있기에 꾸준히 높은 품질을 유지해 유럽산 대안 이미지 유지 필요 우리 기업들은 통상 2~3회 분납만 허용. 서유럽 업체들은 튀르키예로 수출 시 5회 이상 분납 결제 방식을 많이 사용하여 선호도가 높으니 이와 같은 결제 방식 사용 고려 가능
품목명 2		
화장품	선정사유	한류와 K-beauty 영향으로 꾸준히 한국산 화장품 수요 증가 중. 점차 사용하는 연령 층이 넓어지고 있음
	시장동향	한국산 화장품의 고급 이미지로 대형 백화점 내 화장품 전문 판매점 입점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한국산 화장품의 좋은 성분과 탁월한 효과, Cruelty free 등의 이미지로 관심도 지속 증가
	경쟁동향	니베아, 뉴트로지나, 존슨앤존슨과 랑콤, 에스티로더, 맥 등으로 양분화된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새로운 대안책으로 부상 중
	진출방안	강렬하고 뚜렷한 메이크업을 즐기는 튀르키예 여성들을 고려하여 현지인 피부 톤에 맞는 색조 제품 출시. 가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성 제품 위주 수출
품목명 3		
센서	선정사유	기기 자동화, 스마트시티산업 육성 등으로 인해 센서 수요 증가
	시장동향	자국 내 센서 생산업체 거의 전무, 대부분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독일과 일본, 미국산 센서를 주로 사용하며 중국산도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영국 브랜드 사용 중
	진출방안	기준에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이 센서시장을 석권하고 있기에 대안으로서 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 진입 추천. 향후 튀르키예 내 생산공장 또는 기술합작 등도 고려 추천
품목명 4		
태양광 패널	선정사유	유럽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유럽으로 수출이 많은 튀르키예 역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며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아직 자국 수요를 현지에서 대응하지 못해 수입 수요가 더 많은 편.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 중
	경쟁동향	CW Enerji는 튀르키예의 태양광 패널 제조사로 국내 주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산 제품도 수입되나 현재 반덤핑관세 부과 중
	진출방안	현지 바이어와 공조하여 정부 공공 입찰 참가 고려
품목명 5		
리튬이온 축전지	선정사유	태양열 발전은 일광 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축전지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자국 생산 규모는 현지 수요를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지속 태양열 발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축전지에 대한 수요 증가 중
	경쟁동향	일본과 중국산 제품이 튀르키예 시장의 60% 이상 점유. 한국산 제품의 경우 5.5%를 점유

	진출방안	정부 공공 입찰, 기존에 구축된 유통망 활용 등을 위해 현지의 업력이 높은 바이어와 파트너십 체결
품목명 6		
의료기기	선정사유	수입산 의료기기 수요 다대(전체 시장 85% ↑). 정부 주도 대형병원 확충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수요 증가 예상
	시장동향	튀르키예는 의료산업을 주력 육성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의료 관광 확대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영상장비 등 하이테크 장비 수입 의존도 높은 편
	경쟁동향	미국, 독일, 중국 등 3개국 제품이 시장의 50% 내외 점유 중으로, 한국산 제품 수입시장 점유율은 3% 내외
	진출방안	튀르키예는 의약품·의료기기관리청(TITCK)의 제품 등록 시스템(UTS)을 통해 의료기기의 생산과 유통을 관리. 바이어를 발굴하여 기기 등록 절차 진행 가능
품목명 7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자동차산업 등 수출주도형 산업 활성화 예상
	시장동향	튀르키예는 14개의 완성차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연150만 대 이상의 완성차를 제조하며 1,800만 대 이상의 등록차가 있어 거대 A/S 부품시장 수요 존재
	경쟁동향	자국의 완성차 브랜드를 보유한 독일, 일본 등이 수입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이 외에도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도 시장 내 수요 존재
	진출방안	정부기관(KOTRA,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 등)과 협업을 통한 완성차 업체 납품 타진
품목명 8		
폴리에틸렌	선정사유	튀르키예 내 폴리에틸렌 생산 인프라 부족으로 관련 수요 대부분 수입 의존
	시장동향	제조업 육성을 위해 지속 노력 중에 있으나 플라스틱 원부자재 생산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폴리에틸렌 수요 지속 상승 중
	경쟁동향	사우디, 미국, 이란에서 주로 수입
	진출방안	현지 벤더 또는 시스템 하우스 접촉·협력
품목명 8		
전기차부품	선정사유	그린 모빌리티에 대한 한국의 정책 및 현지의 전기버스, 전기자동차 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선정
	시장동향	내수용 또는 동유럽 수출용 전기버스 생산. 전기승용차 TOGG 양산 중
	경쟁동향	주요 핵심 부품은 유럽시장 통해 조달. 기타 소모품은 현지 조달 또는 중국 등 수입
	진출방안	현지 자동차부품 벤더 협력 또는 제휴업체 등록 에이전트 발굴
품목명 9		
전기차 충전기	선정사유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적극 추진 중
	시장동향	자국 전기차 브랜드 TOGG를 개발·양산 중에 있으나, 아직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
	경쟁동향	주로 중국 및 동남아 OEM 생산 등을 통해 수입해오고 있는 상황
	진출방안	전기차 충전소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 또는 제휴
품목명 10		
섬유 편물기 부품	선정사유	튀르키예는 섬유 수출 세계 6위 국가로, 섬유 기계 부품 관련 수요 높음
	시장동향	'21년 튀르키예 섬유산업 생산 확대에 따른 다림질 기계, 편직기(우븐기), 바늘, 부품 수요 지속 상승
	경쟁동향	저가 제품의 경우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며,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고가 제품 수입
	진출방안	현지 전시회 참가 및 관련 에이전트 발굴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포털 사이트 S/W	선정사유	인터넷 보급률이 75% 이상이며 개인 모바일 기기 보급도 증가했지만 종합 포털 플랫폼이 미비한 상황
	시장동향	튀르키예는 Naver, Daum 등의 자체 종합 포털 사이트가 없으며 Google이나 Yandex 등 외국의 검색 엔진만 활용
	경쟁동향	현지 뉴스와 소식을 모아놓은 onedio, 네티즌 의견을 공유하는 eksisozluk 등의 현지 플랫폼이 있으나 종합 포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없음
	진출방안	한국 내 포털들의 성공 사례 벤치마킹과 실패 사례를 검토하고, 튀르키예의 문화와 유저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 필요
품목명 2		
스마트시티 구축 솔루션	선정사유	매년 100만 명씩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과 수요 증가
	시장동향	중앙정부 주도로 '19년도에 국가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방침 발표.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전략 과제와 로드맵 수립
	경쟁동향	영국, 싱가포르 등 스마트시티 선진 사례 구축 국가 등에서도 현지 지자체에 솔루션 제공 중
	진출방안	현지 지자체 또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솔루션 제공
품목명 3		
인프라 건설/엔지니어링	선정사유	튀르키예는 지진 재건 등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예정
	시장동향	국내 건설사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 수주하였으며,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인프라 엔지니어링 분야 참여 중
	경쟁동향	건설 분야는 현지 기업 외에도 이탈리아, 일본, 중국 업체 위주. 엔지니어링 분야는 북유럽 회사 등이 프로젝트 수행
	진출방안	국내외 유명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통한 프로젝트 참여 필요
품목명 4		
SW	선정사유	한국 IT 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도
	시장동향	튀르키예 소프트웨어 기업 중 46%는 이스탄불에 소재 중으로 시스템,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하며 앙카라 소재 기업들은 보안과 방산 분야에 특화
	경쟁동향	정부의 현지 SW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현지 SW기업 우대 등의 정책 시행 중
	진출방안	현지 IT 기업과 협업을 통해 튀르키예 현지 수요에 맞추어 현지화한 후 진출
품목명 5		
콘텐츠	선정사유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증이 확대되고 있으며, OTT,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인한 콘텐츠 전파력 강화
	시장동향	게임산업 등을 제외하면 아직 콘텐츠 시장은 초기 단계이나, 코로나19 이후의 문화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 수요 다각화 예상
	경쟁동향	각종 OTT의 등장으로 튀르키예 자체 콘텐츠도 더욱 다양해지며 중동 및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부상 중
	진출방안	현지 트렌드 파악 및 분석,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법, 모바일 인터넷 환경 등을 고려해 철저한 현지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한-튀르키예 프로젝트 협력 강화	튀르키예 상담회(IDEF 2024)와 국내 전시회(KODAS) 연계 등을 통해 한-튀르키예 협력 네트워크 강화	연중/이스탄불
	첨단 산업 및 방산 관련 역내 생산 강화 움직임에 대응,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및 기술 제휴를 통한 시장 진입 지원	
	원자력 발전소 건설, 데이터센터 구축, 수처리, 통합 폐기물 관리 등 튀르키예 주요 프로젝트 참여 및 협력 지원	
현지 GVC 진입을 위한 파트너링 사업 추진	첨단 산업 및 중간재 자국 생산 유도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컨설팅 지원	연중/이스탄불
	현지 대기업과의 협력 가능 분야 및 설비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맞는 품목별 전문 사절단 및 상담회 개최	
수입 수요 증가 유망 품목 타깃	이스탄불 치과의료기기 전시회	2분기/이스탄불
	조선해양 기자재 무역사절단	2분기/이스탄불
	이스탄불 포장 전시회	4분기/이스탄불
	DX 기반 수출초보기업 지원 사업	상·하반기/이스탄불
	현지 메이저 온라인 플랫폼 협력, K소비재 판촉전	상·하반기/이스탄불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지방선거	2024.3.31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4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개정	2024.3	-
2025 예산 발표	2024.10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xpomed 2024	2024.4.25~27	-
Beauty Eurasia 2024	2024.9	-
IDEF 2024	2024.9	-
Packaging Eurasia 2024	2024.10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한수	과장	이스탄불 무역관	+90-212-325-3646(113)	hskim@kotra.or.kr
2	김우현	대리	이스탄불 무역관	+90-212-325-3646(118)	woohyun@kotra.or.kr
3	박경윤	과장	본사 아시아중야팀	+82-02-3460-7657	blueberry@kotra.or.kr

2024
튀르키예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